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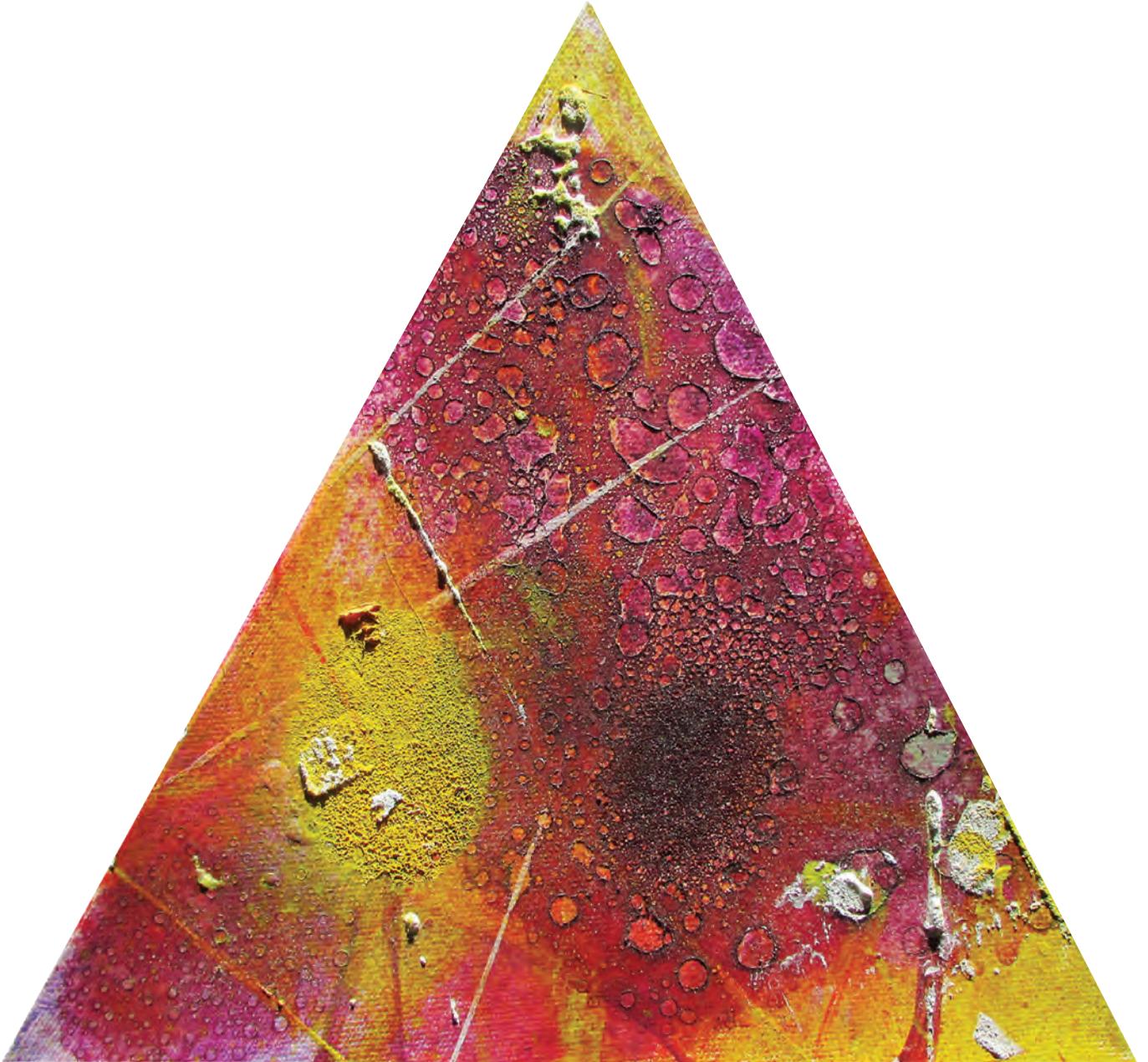


우수콘텐츠잡지  
2023

#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2026 **3**  
VOL.249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팬텀 스타워즈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바리톤  
이승민



하프  
한혜주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  
주비아가



테너  
김진훈



오르간  
장대호

총감독 김성경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연합합창단

2026. 4. 19 [일] 5:00pm



부산콘서트홀

주최 | (사)부산예술후원회 주관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 | 부산일보 | 국제신문 | KBS | 부산방송총국 | 부산MBC | KNN | 협찬 | FUTRONIC | (주)골든블루 | Gimax | 경동건설

티켓 | B석 50,000원 C석 30,000원 공연문의 | 010-3940-3060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 예감

2026년 2월-12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 2.4.(수) 음악하는 사람들 Music in <와그직!!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 2.6.(금) 운사당: 정자경 가야금병창 아지트 <소리, 바다를 건너다>
- 2.11.(수) 해낙낙 <도니제티 오페라-사랑의 묘약>
- 3.9.(일) ~ 3.15.(일) 허종자 <지은 허종자 개인전>
- 3.23.(일) ~ 3.29.(일) 홍천호 <홍천호의 시간여행전>
- 4.20.(일) ~ 4.26.(일) 파티나 컨트리 <who loves old thing>
- 6.8.(일) ~ 6.14.(일) 나연희 <제27회 나연전>
- 6.22.(일) ~ 6.28.(일) 김덕용 <글뎌 김덕용 서예전>
- 7.13.(일) ~ 7.19.(일) 부산미술서예작가회 <부산 미술 서예작가회전>
- 7.27.(일) ~ 8.2.(일) 부산문인협회 시분과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 8.17.(일) ~ 8.23.(일) 부산예술건축문화회 <공간의 여정>
- 8.24.(일) ~ 8.30.(일)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 9.7.(일) ~ 9.13.(일) 이동욱 <이동욱 개인전-시선이 머문 자리>
- 11.4.(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사계>
- 11.11.(수)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부산, 바람의 시작>
- 11.18.(수) 부산아이디발레단 <렉처 퍼포먼스 발레리노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
- 11.25.(수) 더부산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더부산필하모니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 12.2.(수) 이바디예술단 <술가락 젓가락 들고 떠나는 메구놀이(풍물) 맛 기행>
- 12.9.(수) 춤과사람 <추풍연(秋風宴)>
- 12.16.(수) 원기동 국악예술단 <사노라면-화류춘몽>

2026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 점심 in Madang 버스킹

3월~4월, 매주 화요일, 수요일 12:30~13:30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주최 |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 070-7747-0396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4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야간)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5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6	7
8	9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문화가있는날:예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0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문화가있는날:예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1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문화가있는날:예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2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문화가있는날:예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3 문화가있는날:예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4 문화가있는날:예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5 문화가있는날:예감 지은 허종자 개인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6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초대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7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초대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18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초대 전(3·4층전시장) 051)631-1377	19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초대전 (3·4층전시장) 051)631-13777	20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초대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21
22	23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문화가있는날:예감 홍찬효 시간여행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24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문화가있는날:예감 홍찬효 시간여행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25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문화가있는날:예감 홍찬효 시간여행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26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문화가있는날:예감 홍찬효 시간여행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27 문화가있는날:예감 홍찬효 시간여행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28 문화가있는날:예감 홍찬효 시간여행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29 문화가있는날:예감 홍찬효 시간여행전 (3·4층전시장) 051)631-1377	30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31				



# ART BUSAN MONTHLY VOL.249

## 2026 MARCH 3

### CONTENTS

#### 권두칼럼

08 기술은 어떻게 기억의 감각이 되는가 \_ 김기태

#### 예서제서

- 10 부산예총 2026년 정기총회
- 12 202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와그작!!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_ 정혜주
  -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_ 이선
- 16 2026 걷다가 만난 버스킹 in Madang
- 17 조일상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일본 훈장 전달식 개최
- 18 부산미술협회 80주년 기념전 개최 - 부산미술을 다시 바라보다
- 22 제44회 다-다른 부산연극제
- 26 부산현대미술관 2026년 전시 라인업
- 28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20주년 전시
- 29 JM양상블 환경콘서트 <이웃과 자연> \_ 정혜주
- 30 智垠 허종자 개인전 - 붓으로 써 내려간 좌망<sup>坐望</sup>의 풍경
- 31 홍찬효의 시간여행展 - 항해로 떠나는 시간여행
- 32 고립의 문을 흔드는 문화예술의 힘 \_ 고윤정
- 35 폐교에서 길을 묻다: 폐교 활성화 <2> \_ 정달식



#### 표지\_유성철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및 경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 부산미술협회 정보위원장, 회원관리위원장,
- 부산미술대전, 광주미술대전, 청소년예술제 등 심사위원 역임
- 부산미술협회 '오늘의 작가상', 송해수미술상 수상
- 단체전 기획전 초대전 다수 참여

Drawing- #The Backlight, 0112-2026\_Oil on canvas, 25×21cm(변형), 2026



### 포토에세이

38 벚꽃 \_ 손승욱

### 수필의 뜰

42 그냥 그렇게 \_ 심선경

### 인물포커스

46 소프라노 변향숙 \_ 이선

### 예인탐방

48 무용가 황지인 \_ 박준영

### 예술가열전 242

50 작가 안유환 \_ 정혜주

### 손으로 쓴 문학

54 명지득길 \_ 이석래

### 들어다보기

56 음악/ 왜 말러인가? \_ 김윤선

60 문학/ 박창주 『공무도하 - 임아, 강을 건너지 마오』 작품론 \_ 안수현

62 연극/ 『오셀로』 이후를 묻다

- 〈시간의 저편에서〉의 상호텍스트성 \_ 김영희

### 기획연재

64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7화 「부산행진곡」과 메리켄 부두 \_ 이용득

68 세상의窓 - 한국과 부산은 왜 '그린란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_ 심수화

72 예총-전시-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3월 동권 249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6년 2월 27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욱(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혜주 편집기자\_ 박준영, 이선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술은 어떻게 기억의 감각이 되는가

글\_ 김기태 (주)토즈 대표이사

도시는 기억의 층위로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건축과 유적만이 아니라, 그 위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와 감각 그리고 공동체가 공유해 온 시간의 흔적들이 도시를 살아 있게 만든다.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현재의 감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박물관의 유물은 유리 진열장 안에 고정되고, 역사는 텍스트와 연표 속에서 점점 추상화된다.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 일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은 기억과 감각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이 단절을 다시 잇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더 빠르고 보다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에서 벗어나 사라진 시간과 상실된 감각을 현재로 불러오는 매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활용되는 XR은 '보는 기술'을 넘어 '느끼고 공감하는 장치'로서, 인간의 인식 구조 자체를 재편한다.

지난해 가을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외교적 수사나 경제적 의제보다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방식이었다. 경주박물관에서 전달된 천마총 금관 모형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 문명이 축적해 온 미적 감각과 세계관의 압축된 언어였다. 대릉원

---

과 첨성대를 무대로 펼쳐진 미디어아트는 유적을 '보존의 대상'에서 '현재형의 경험'으로 전환시켰고, 도시는 무대가 되어 과거와 현재, 시민과 방문객을 동시에 포용했다. 세계 외신들이 경주 APEC을 문화외교의 사례로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전통을 전시하지 않고 전통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 흐름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골든 신라 XR 모빌리티 버스'다. 이동 수단이라는 일상의 공간은 이 버스를 통해 기억의 통로로 변모한다.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풍경은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위에 겹쳐진 영상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호출이 된다. 첨성대 위로 쏟아지는 별빛, 황룡사 터에서 솟아오르는 가상의 목탑은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복원이기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에 다시 접속하도록 만드는 감각적 제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정밀도가 아니라 관람자가 느끼는, '있었을지도 모를 시간'에 대한 공감이다.

XR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포괄하는 기술로 정의되지만, 문화적 맥락에서의 XR은 현실을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확장된 인식의 층위에 가깝다. 이는 예술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예술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말해지지 않은 질문을 감각의 형태로 던져왔다. XR은 그 질문을 공간과 시간, 신체 경험의 차원까지 확장한다.

2022년 포틀랜드 미술관에서 열린 XR 몰입형 전시 'Symbiosis'는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기후위기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 전시는 관객을 미래의 관찰자에서 그 세계에 연루된 존재로 변화시킨다. 관객은 인간의 시점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체의 감각과 시간을 경험하며 기후 변화라는 추상적 담론을 윤리적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때 XR은 기술적 장치라기보다 타자의 입장에 서게 만드는 인문적 실험이다.

결국 XR과 예술의 결합은 기술 진보의 문제에서 나아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왔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삶 속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경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기술은 문화의 목적이 될 때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사유를 확장하는 수단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예술은 그 접점에서 사라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잇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다시 기능하고 있다.

# 부산예총 2026년 정기총회

2026. 2. 24.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이하 부산예총)는 2026년 2월 24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오수연 회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됐다. 오 회장은 다가올 부산예총의 새로운 변화를 언급하며, 부산 예술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다양한 예술 활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부 행사에서는 공로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공로상은 부산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되는 이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자는 부산건축가회 한선영(이사) 부산국악협회 김명숙(부회장) 부산무용협회 김은경(교본) 부산문인협회 문인선(부회장) 부산미술협회 김정우(회원) 부산사진작가협회 신

현숙(총무) 부산연극협회 김민수(이사) 부산연예예술인협회 김정현(노래교실위원회 위원장) 부산음악협회 김윤선(학술비평분과위원장) 부산꽃예술작가협회 김영옥(부회장) 부산차문화진흥원 장기덕(이사) 부산예총 이수연(회원) 등 총 12명이다.

2부에서는 감사보고에 이어 ▲202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추가 현안으로 영화인협회 회원단체 재가입 건과 부산생활예술인연합회 특별회원 가입 건이 상정됐으며, 해당 안건은 이사회 의결에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65차 [사]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제17차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정기총회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17:00 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총은 2025년 '홍축제' 등 전국 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단체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2026년에는 부산시 지원금 증액과 더불어 3월부터 공연장 증축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공연장은 300석 규모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회원단체 사업계획으로 총 106개 행사가 기획돼 부산 예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 편집실

- 1 정기총회 기념 단체사진 2 공로상 시상식 I
- 3 공로상 시상식 II 4 부산사진작가협회 강종관 회장이 질의하고 있다.
- 5 부산예총 회장단과 대의원 참석 사진 I
- 6 부산예총 회장단과 대의원 참석 사진 II



#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로

## 와그작!!

###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음악하는 사람들 Music in]

2026. 2. 4.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어렸을 적, 공연장을 찾는 일은 일상이라기보다 특별한 날에 가까웠다. 언젠가 캄캄한 객석에 앉아 화려한 뮤지컬을 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그날 공연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는 희미해졌지만, 무대 위의 움직임, 음악의 리듬, 무수한 빛과 색채 등은 무지개처럼 겹겹이 쌓여 행복함으로 기억된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어린이를 위한 예술 공연은 반갑다. 어릴 적부터 경험한 예술은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음의 고향처럼 남는다. 아이의 귀에 울린 음악은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하고 예술적 취향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어 무의식 속에 각인된다. 지치고 힘든 날에도 우리가 공연장과 미술관을 찾는 것은 아름다움이 건네는 위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부산예술회관 기획 '문화가있는날' 예감의 첫 번째 순서로 [음악하는 사람들 Music in]의 <와그작!!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가 열렸다. 플루트와 색소폰 등 목관악기가 중심을 이루고, 피아노와 내레이션이 더해져 장면마다 어울리는 음악적 분위기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달은 어떤 맛일까?”라는 동화책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아이들 또한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날의 주인공으로 함께했다. 무대는 객석으로 점차 확장되었으며, 아이들은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환호하며 공연을 만끽했다.

앞서 언급했듯, 예술을 즐기는 태도에는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이 중요하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 가운데에는 코로나 시기에 태어났거나 영유아기를 보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성장하며 타인의 표정을 읽거나 언어 및 감정 표현을 익히는 데 일정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풍부한 감정과 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예술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드물다.





예술가들 역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어떤 서사와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한다. 그 지점에서 예술교육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의 문제로 확장된다. 예술은 아이들에게 기쁨과 슬픔, 분노와 고통 같은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살아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재미있다', '해보고 싶다'라는 자발적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날 공연은 특별한 경지에 오른 연주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고도의 기교가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어린이의 시각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진행됐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클래식에 대한 해설이나 악기의 설명이 아니었고, 자기 안의 감각을 일깨우는 경험의 시간이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내면을 더듬어 가며 만나는 발견의 순간이 중요했다.

어린이를 위한 예술의 본질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마주하느냐에 있다. 한 권의 동화책으로 전개된 음악에 편안한 공존과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피어났고, 예술가와 관객은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 역시 예술가였다.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북이가 목격한 색소폰 선율과 함께 무대에 등장하자, 첫 곡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서슴없이 "앙코르"를 외쳤다. 진정한 예술은 아이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진실한 예술적 소통과 만남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고, 그 열망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진실한 아름다움이 전하는 감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명하다.

글 정혜주



# 해낙낙만의 클래식 오페라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2026. 2. 11.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이 '문화가있는날'을 맞아 도니제티 명작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선보였다. 해처럼 밝고 즐거운 음악을 추구하는 [해낙낙]은 그간 클래식을 다양한 형식으로 재해석하며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이번 무대 역시 원작의 음악적 매력을 살리되, 친절한 해설과 감각적인 연출을 가미해 오페라에 낯선 관객도 서사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듯 차분하게 설명을 곁들이는 해낙낙만의 방식은 모든 관객의 자연스러운 몰입을 이끌었다.

「Overture」로 공연의 서막을 알리며 인물 간 관계와 상황을 담은 내레이션을 서사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다. 이어 네 모리노가 아디나에게 바치는 순수한 사랑 고백 「Quanto è

bella, quanto è cara」에서는 가사에 맞춘 섬세한 연기와 동선을 통해 무대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무대 뒤편에 번역 가사를 함께 제시하여, 관객이 음악과 대사를 동시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배려가 돋보였다.

「Della crudele Isotta」는 극 중 극play within a play의 구조를 활용해 핵심 소재인 '사랑의 묘약'을 자연스럽게 등장시켰다. 아디나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읽으며 묘약으로 맺어진 사랑을 가볍게 비웃지만, 이를 듣는 네모리노는 오히려 그 힘을 진지하게 믿는다. 같은 이야기를 두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태도는 이후 펼쳐질 사건의 단초를 마련하며 서사의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벨코레 장군의 자신감 넘치는 구애





아리아 「Come Paride vezzoso」와 그의 등장으로 다급해진 네모리노의 고백, 아디나의 거절이 교차하는 듀엣 「Una parola, o Adina」에서는 두 인물의 감정선과 관계의 엇갈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공연 중반부는 약장수 둘까마라의 등장으로 극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반전시켰다. 「Udite, udite, o rustici」에서는 한국어 번안 가사에 지역적 특색이 담긴 사투리를 가미해 관객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는 공연의 백미 중 하나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공연장을 단순한 '감상'의 공간을 넘어 '참여'의 무대로 확장했다.

둘까마라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랑의 묘약(실은 평범한 술)을 마신 네모리노는 「Caro elisir! sei mio!」를 부르며 희망에 부풀지만, 여전히 차가운 아디나의 반응에 좌절한다. 결국 묘약을 더 사기 위해 군 입대까지 결심하며 부르는 「La donna è un animale」에서 네모리노와 벨포레의 대조적인 사랑관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네모리노의 순수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Bella Adina」에서는 막대한 유산 상속 소문으로 마을 여성들이 네모리노에게 몰려들자, 아디나는 질투와 혼란을 느끼며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둘까마라는 아디나에게도 묘약을 팔려고 하지만, 아디나는 자신의 매력과 진심으로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서 둘까마라가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아디나에게 말을 건네는 연출은

지역 공연만의 색깔을 더하며 객석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사랑의 묘약〉의 하이라이트 아리아인 「Una furtiva lagrima」는 극의 정서를 하나로 응축했다. 네모리노는 아디나의 진심을 확신하며, 그 순간 벅차오르는 감정을 노래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마음을 서정적인 선율 위에 섬세하게 실어 극의 정서를 응축하며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어 「Prendi, per me sei libero」에서 아디나는 네모리노의 입대를 취소시키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어지는 포옹은 작품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안도감을 전했다. 피날레 합창 「Ei corregge ogni difetto」은 사랑의 '묘약'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을 완성했다는 작품의 메시지를 경쾌하게 정리한다. 하지만 묘약이 있었기에 두 사람이 사랑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는 역설을 남기며 작품의 여운을 준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환상적 장치를 통해 사랑의 본질을 묻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익숙한 아리아에 더욱 생동감 있는 연기와 동선으로 오페라가 지닌 재미와 감동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한 편의 달콤한 동화처럼 흘러가지만, 극 안에는 사랑을 향한 용기와 성장의 과정이 담겨 있다. 기적이 아닌 '진심'이 사랑을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해낙낙은 밝고 따뜻한 음악극으로 관객에게 건넸다.

글 이선

# 2026 걷다가 만난 버스킹 in Madang

3~4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 퓨전뮤직 <루티드 사운즈 Routed Sounds>

3. 24.(화) / 4. 14.(화) 문화예술 올타all-ta

[문화예술 올타]는 모든 예술을 포용한다는 의미 아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융복합 창작을 선보이는 단체이다. 이번 공연은 「아리랑」 「도라지」 「한오백년」 등 익숙한 민요에 스윙과 라틴, 펑크 리듬을 더해 전통민요를 감각적으로 재해석한다. 1부는 장르적 변주, 2부는 즉흥 연주와 관객 참여로 흥겨운 '판'을 펼치며, 익숙한 노래를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확장한다.

## The cycle of inspiration in classical music

3. 25.(수) 앙상블 비드뭉 Ensemble Widmung

[앙상블 비드뭉]은 '헌정'을 뜻하는 이름처럼,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잇는 진정성 있는 무대를 지향한다. 클래식 에 담긴 존경과 위로의 정서를 동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각 연주를 하나의 음악적 메시지로 전한다. 이번 공연은 '영감의 선순환'을 주제로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넬라 판타지아」 지브리 음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 이야기가 있는 금관악 <Modern x Jazz>

3. 31.(화) / 4. 7.(화) 우가뮤직

[우가뮤직]은 청년 예술가의 창의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중 친화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음악과 재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감각적인 사운

드를 펼친다. 「Instant Concert」 「Tequila」 「Eine Kleine Nachtmusik」을 비롯해 「Danny Boy」와 「Moment for Morricone」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선율로 깊은 감성과 여운을 전한다.

## 파도 위의 장단

4. 1.(수) 짓무용단

[짓무용단]은 전통 장단 위에 삶의 순환과 자연의 흐름을 담아내는 무대를 선보인다. 「십이체장고춤」과 「호걸양반춤」 등으로 전통 춤의 멋과 흥을 전하고 「태평무」 「진도북놀이」 「진쇠춤」으로 힘찬 에너지와 공동체적 울림을 완성한다. 계절의 흐름을 삶에 빚댄 이번 공연은 관객을 사유와 공감의 여정으로 이끈다.

## 세대 소통 <사제지간 師弟之間>

4. 8.(수) 판문화예술단

[판문화예술단]은 한국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기반으로 전통의 미학을 전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이다. 해당 공연에서는 실제 사제지간인 중·장년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춤을 매개로 세대 간의 대화와 감성적 교류를 풀어낸다. 「태평무」와 「영남 덧배기」 등으로 전통의 깊이를 전하고 「소고춤」과 「광대무」 등으로 역동적인 흥을 더하며 전통의 계승과 확장을 선보인다.

문의\_070)7747-0396 / 편집실



## 조일상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일본 훈장 전달식 개최

2026. 1. 28.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조일상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한국과 일본의 예술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총영사 오스카스요시)은 1월 28일 오후 영사관 관저에서 조일상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게 옥일증수장을 전달했다.

옥일증수장은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조 전 관장은 부산시립미술관장 재직 당시인 2006년부터 10여 년간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나가사키현미술관 등과의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한-일 예술 교류에 앞장섰다. 특히 2008년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과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 기관 소장품 교류전을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예술을 통한 지역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나가사키현 미술관과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내일을 여는 한-일 어

린이 미술교류전'을 네 차례 열었으며, 미술관 전문 인력 상호 파견도 추진했다. 2015년 4월에는 부산시립미술관에 '이우환 공간'을 유치하는 등 지역 미술 발전에도 공을 세웠다. 이우환 공간은 일본 가가와현 나오시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산시립미술관 부지에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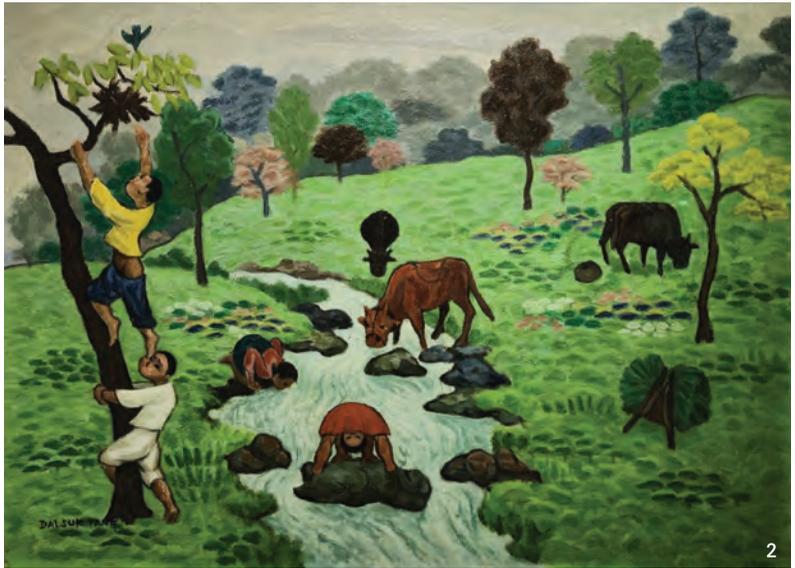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쓴 조 전 관장은 1978년 제2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무총리상, 2021년 부산광역시 문화상(시각예술 부문), 2022년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2018~2020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 전 관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양국 간 교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편집실





1 이석우(작고작가)\_일간풍월 2 양달석(작고작가)\_넋가



### 1946년 '부산미술가동맹'에서 시작된 자생적 연대

부산미술협회의 역사는 해방 직후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적 인프라가 전무했던 시기에 지역 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부산미술가동맹]을 결성하고 같은 해 3.1절 기념전을 열어 지역 미술의 태동을 알렸다. 이번 전시 또한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예술로 시대를 증언해 온 부산 미술의 흐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로서 전국의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창작의 꽃을 피웠던 부산만의 특수성과 그 속에서 배양된 실험성 및 저항의 미학과 함께 축적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 작고 작가부터 현역 작가까지, 903인의 방대한 라인업

전시의 규모 또한 80년을 기념하는 만큼 역대급이다. 1946년부터 1959년까지 부산 미술의 기틀을 닦았던 작고 작가 22인의 유작을 시작으로, 현재 협회에서 활동 중인 12개 분과 881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903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러한 구성은 부산 미술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세대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변주되고 축적되었음을 증명한다. 관람객은 이번 전시를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가 품어온 창작의 결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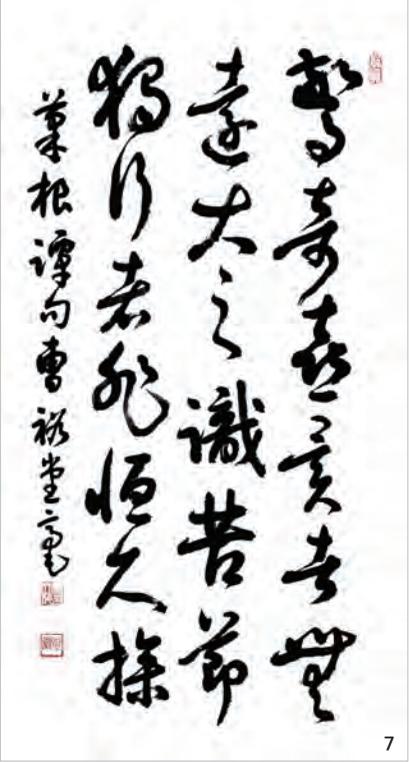
특히 초기 부산 미술을 이끌었던 작고 작가들의 작품은 부산미술협회의 역사적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양달석 화백은 유년 시절 목동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목가적이며 동화적인 정서를 화폭에 담아왔다. 그는 비망록에서 “소를 나의 부모처럼 혹은 자식처럼 그려왔다. 소 등에서 낮잠 자는 그림, 비가 올 때 소 밑에서 비를 피하는 그림 등도 이때의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회고한 바가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넋가〉 역시 자연과 소, 인간이 교감하는 평온한 세계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이석우 화백은 한국화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 속에서 독자적인 화법을 구축했다. 수묵채화 계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그의 작품은 한국 고유의 정신성과 깊은 정취를 깊이 있게 담아낸다. 이번 출품작 또한 그가 확립한 한국적 조형 언어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강윤\_교감 4 송영명\_가을햇살에 영그는 풍요  
5 송혜수(작고작가)\_소와 여인 6 강선보\_상황



7



8



9



10



11

이강윤 화백은 송혜수 화백 문하에서 수학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그림은 온화한 모성애와 유년의 순수,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사랑의 공명을 그려내며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를 펼쳐왔다. 여인과 소, 가족을 주요 소재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에 대한 갈망,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의 서정적 화면 구성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송영명 화백은 독보적인 정물화를 선보인다. “바로크의 부활인가, 자연의 찬사인가”라는 평처럼, 그의 작품은 고전적 형식을 취하면서도 시대에 뒤처지거나 진부하지 않다. 오히려 자연 깊이와 생명력을 담아내며 관객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전이 아니다. 개별 작가의 삶과 작업이 교차하며 80년의 시간을 하나의 집단적 서사로 엮어낸 기록이다. 축적된 예술적 성취는 오늘의 부산 미술을 지탱하는 토대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좌표로 기능한다.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7 조대무\_驚奇喜異者(경기희이자) 8 박주현\_얼굴  
9 신흥직\_론다 10 박대련\_넙 11 최장락\_부산 사랑! 새로운 비전!

# 제44회 다-다른 부산연극제 2026. 4. 3. ~ 26.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부산연극제(예술감독 최용학)가 올해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만난다.

이번 연극제는 '다-다르다'를 슬로건으로, 서로 다른 창작 방식과 감각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는 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올해 축제는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부산연극협회 회원들의 합동 공연을 비롯해 배우들의 1인극 릴레이,

연극인 100명이 참여해 100초 영상으로 소개하는 '100터뷰' 영상 프로젝트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부산연극제는 4월 3일부터 26일까지 영화의전당, 백양문화예술회관, 낙동아트센터, 나다소극장, 소극장 6번출구 등

부산 전역에서 열린다. 폐막기념공연으로는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선정 기념 부산 청년 연극인 합동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편집실

## 섹션Busan - 부산에서 활동하는 연극단체의 자유 참가 경연 섹션

### 〈NULL〉 극단|아티

일시| 4. 7.(화) ~ 8.(수) 오후 7시 30분 장소|나다소극장

그림을 그려주는 AI 프로그램 '그리다'를 개발한 현상과 해정. 어느 날 '그리다'로 제작한 작품이 미술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들은 예술과 창작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후 연구진은 출품자를 직접 만나며,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극단 아티\_NULL

### 〈고립〉 극단|따뜻한 사람

일시| 4. 9.(목) ~ 10.(금) 오후 7시 30분 장소|소극장 6번출구

한파 속 외판곳에 고립된 사람들 앞에서 생존을 위한 호의는 곧 통제로 전환된다. 살아남기 위해 도입된 '선행 상벌제'는 서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경쟁으로 변질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선'이 과연 구원의 기준인지 또 다른 폭력의 이름인지 질문을 던진다.

### 〈돈키호테 ; 미치거나, 즐기거나〉 극단|우릿

일시| 4. 11.(토) 오후 7시 30분 / 4. 12.(일) 오후 3시

장소|나다소극장

돈키호테를 각색하려는 한 작가는 현실 앞에서 대중의 취향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작품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과정에서 돈키호테와 산초 등의 인물이 무대에 등장하며, 작가의 상상과 현실을 오간다.

## 〈지네각시 - 흠어진 기억의 파편〉

극단 | 동그라미 그리기

일시 | 4. 13.(월) ~ 14.(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소극장 6번출구

치매에 걸린 엄마는 과거와 현실, 허상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한다. 딸에 대한 그리움과 파편화된 기억, 내면의 대화를 통해 상실감과 죄책감을 마주하며 치유의 과정을 그려낸다. 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치매는 기억을 지우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2인극이다.



극단 동그라미 그리기\_지네각시-흠어진 기억의 파편-

## 섹션Unique - 부산연극협회원 개인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초연작품 지원 섹션

### 이하슬의 〈하우스 오픈〉 극작 | 이하슬

일시 | 4. 15.(수) ~ 16.(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나다소극장

연극 〈춘향은 기다리고 몽룡은 오지 않는다〉의 첫 공연 날, 허름한 소극장은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갑작스러운 정전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연출, 다른 일에 더 몰두한 듯한 극장 대표까지 겹치며 무대에는 두 여배우와 어린 조연출만이 남는다. 이들은 과연 무사히 하우스 오픈을 맞을 수 있을까.



극단 우릿\_돈키호테 미치거나, 즐기거나

### 박용희의 〈초요갱〉 연출 | 박용희

일시 | 4. 17.(금) 오후 7시 30분 / 4. 18.(토) 오후 3시

장소 | 소극장 6번출구

가문의 몰락으로 관비가 된 초요갱은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감각을 무기로 삼는다. 세 왕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존의 선택을 이어가지만, 왕실의 질서가 흔들리며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집중된다. '요물'로 규정된 초요갱은 처형 대신 유배형에 처하고, 끝내 기록에서조차 지워진다.

## 섹션Stage - 국내외 우수작 초청 섹션 및 2026 부산연극제 특별 공연 섹션



### 1. 개막축하공연

〈품: 오늘에게로〉 극단 | 부산연극제작소 동네편

일시 | 4. 3.(금) 오후 7시 30분 / 4. 4.(토) 오후 3시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대기업 콜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은미는 한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다. 사망자는 이전부터 안전 문제를 호소해 온 노동자 김주학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은미는 부모의 노동과 투쟁의 시간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작품은 2026년도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대표 작품으로, 대한민국 노동 투쟁의 역사를 르포 형식으로 풀어낸 새로운 방식의 연극이다.

### 2. 부산연극협회 회원 합동 공연

〈게릴라 씨어터〉 연출 | 양재영

일시 | 4. 10.(금) 오후 7시 30분 / 4. 11.(토) 오후 3시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가상의 세계에서 독재정권에 맞서는 게릴라들은 비행기 소리와 삐라(전단)의 등장으로 전쟁이라는 현실과 마주한다. 전쟁의 현실화는 민중의 심리를 흔들고, 이들은 연극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연기가 이어질수록 서로의 정체는 모호해지고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진다. 부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접근성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 3. 국내 우수 청년극단 교류 초청공연

스포츠 휴먼 드라마 전격 마라톤연극 〈다시 뛴다〉

극단 | 오픈런씨어터(경기도)

일시 | 4. 14.(화) ~ 4. 15.(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백양문화예술회관

마라톤 대회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인터넷 마라톤 동호회 '죽마사(죽도록 마라톤 사랑해)' 회원임을 알게 되며 서로를 응원한다. 거친 숨과 땀을 흘리며 달리는 과정에서 각자가 간직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섯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달려며 완주와 삶을 그려내는 휴먼 드라마 연극이다.



극단 오픈런씨어터(경기도) 타시 쫓다

#### 〈못생긴 남자〉 극단! 품(대구)

일시 | 4. 18.(토) 오후 7시 30분 / 4. 19.(일) 오후 3시

장소 | 백양문화예술회관

유능한 회사원 레테는 외모를 이유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배제된다. 이후 성형수술을 통해 매력적인 '상품'이 된 그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주목받지만, 자신과 똑같은 '상품'이 복제되기 시작하면서 혼돈과 좌절에 빠진다. 작품은 잃어버린 '본래의 자아'를 되찾으려는 과정을 그리며, 2025년 제 4회 '더파란연극제' 작품·연출·연기상과 'K-Theater 어워드' 베스트작품상을 받았다.

#### 4. 부산 대표 배우 1인극 릴레이 공연

〈나, 그리고...〉 연출 | 김태호

일시 | 4. 20.(월) ~ 25.(토) 오후 7시 30분

장소 | 나다소극장

늘 갈등을 막기 위해 중심에 섰지만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부터 조용해지는 법을 배운 그는 성인이 되어 오해와 단절 속에서 자신을 잃어간다. 다시 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 작품은 타인을 배려하다 작아진 '나'를 다시 마주하고 호명하는 무대다.

#### 5. 어린이 뮤지컬

〈거짓말이 보여〉

일시 | 4. 9.(목)~10.(금)

4. 16.(목)~17.(금)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30분(1일 2회)

장소 | 낙동아트센터 앙상블극장

러닝타임 | 공연 60분

봄이는 친구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보라가 반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보라의 뒤로 새빨간 늑대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 어느 날, 보라는 늘 귀마개를 하고 조용히 지내던 진솔이를 괴롭힌다. 거짓말이 보이는 봄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진솔, 거짓말만 하는 보라. 세 아이의 관계를 따라가며 '거짓말'과 '관계'를 질문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갈등을 따뜻하고 상상력 있는 방식으로 풀어간다.



부산연극협회 회원 합동 공연\_게릴라 씨어터

# 부산현대미술관 2026년 전시 라인업 동시대 질문을 전시로 풀어내는 공공미술관의 제안

부산현대미술관(관장 강승환)은 2026년을 맞아 동시대 미술을 통해 인식의 방식과 감각의 지평을 확장하는 전시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포용성, 지역사회 참여라는 공공미술관의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두고 생태·신체·언어기술 등 동시대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총 10개의 다양한 전시로 풀어낸다.

전시는 크게 보기(그림)와 읽기(문자), 몸을 매개로 한 예술 실험,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그리고 소장품 연구의 확장이라는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부산현대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질문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문의\_051)220-7400 / 편집실



### 그림으로 읽고, 문자로 확장하다

3월에 개막하는 '코블소와 유니콘'(3. 21. ~ 7. 19.)은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감각적·직관적 인식의 힘에 주목한 전시다. 글 없는 그림책과 회화, 드로잉, 영상,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관객은 작품 속 서사를 읽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 사이의 여백을 따라 저마다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마고즈Magoz, 발린트 자코Balint Zsako, 아야카 후카노Ayaka Fukano, 이정윤, 주마디Jumaadi, 창작공동체A, 추미림 등 국내외 작가 7명(팀)이 참여해 옛이야기와 신화를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한 50여 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각자의 감각과 해석이 존중되는 열린 서사 구조가 이 전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월에 열리는 '예술과 문자: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2026. 12. 11. ~ 2027. 4. 18.)는 관람 행위를 다시 묻는 전시다. 이미지 중심의 감상에서 벗어나 텍스트와 언어를 주요 매체로 삼은 작품들을 통해 '보기'가 아니라 '읽기'라는 태도를 관객에게 요청한다. 국내외 20명(팀)의 회화, 영상, 설치, 아카이브, 소설,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은 감각적 인식에서 인식론적 사유를 제안하며 예술 경험을 해석과 독해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 신체를 매개로 한 동시대 예술 실험

3월 '소장품섬\_몸의 증언: 김순기, 아나 멘디아타Ana Men dieta, 크리스 버든Chris Burden'(3. 14. ~ 7. 19.) 전시는 서로 다른 신체 실험을 수행해 온 세 작가의 작품을 병치함으로써 신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매개가 아니라 예술이 발생하는 최소 단위임을 보여준다.

4월 '다원예술\_몸, 실험 중: 정금형, 후니다 김Hunida Kim, 권병준(4. 30. ~ 7. 19.)은 각 작가의 작업이 매달 순차적으로 소개된다. 예술 장르 경계를 허무는 다원예술의 확장과 포용성을 주목하는 전시로 퍼포먼스, 워크숍, 테크놀로지 아트 등을 통해 실험적이고 다층적인 과정 중심의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8월 '소장품섬\_심준섭: 기관의 순환'(8. 29. ~ 11. 1.) 전시는 숨소리와 심장 박동 등 신체의 리듬을 사운드와 인터랙티브 기술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 인간·비인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향한 예술적 실천

미술관 유후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커미션 프로젝트 I\_마르코 바로티Marco Barotti'(2026 ~ 2027)와 '커미션 프로젝트 II\_엄유정'(2026 ~ 2027)이 진행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을숙도 생태와 연관된 동식물을 드로잉과 사운드 아트로 풀어내며, 예술 접근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환경과 사회적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연례전 '2026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_공생 직조'(2026. 12. 11. ~ 2027. 3. 7.)는 미래 의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와 윤리적 생산 방식을 결합한 미래 지향적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인간과 환경, 기술이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술적 실천으로 풀어낸다.

### 소장품을 통해 확장되는 공공미술관의 역할

부산현대미술관은 소장품 연구의 심화와 공공재로서의 공유 확대를 통해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3월(3. 21. ~ 7. 19.)과 4월(4. 30. ~ 7. 19.)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수집: 결정의 방'은 자연·뉴미디어·인간을 주요 의제로, 수집해 온 소장품 가운데 국내외 작가 20명(팀)의 영상·설치 작품으로 구성된다. 미술관의 수집 방향과 그 수집이 지향하는 미래를 질문한다.

12월에는 상설소장품 전시 '소장품섬\_뉴미디어와 미디어'(2026. 12. 11. ~ 2027. 3. 7.)가 열리며, 2026년 수집된 국외 소장품을 중심으로 뉴미디어와 미디어의 개념 차이를 조망한다. 전시는 소장품이 지닌 공공성과 연구 가치를 공유하며 동시대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20주년 전시 물의 숨결~시간을 잇다

2026. 3. 23. ~ 28. 부산시청 1:2:3전시실



초대작가 송영명\_거제바다, 20호



작고작가 황규응\_풍경, 20호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전 ‘물의 숨결-시간을 잇다’를 개최한다. 작고작가 9인을 비롯해 초대작가, 분과 회원 및 비회원 등 총 230여 명이 참여한다. 단일 분과 전시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수채화가 품어온 시간의 총위와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한공간에 펼쳐 보일 예정이다.

김원갑의 「풍경」은 형태를 선명히 드러내기보다 번짐과 여백을 통해 공기와 거리감을 전한다. 정상복과 황규응의 작품은 산과 하늘, 물을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하며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과 감각을 담아낸다. 여기서 풍경은 특정 장소의 재현을 넘어 바라보는 순간의 정서로 남는다.

관람객은 단일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시선과 감정의 결에 따라 작품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채화라는 매체가 지닌 폭넓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수채화분과는 이번 기념전을 통해 지역 미술의 흐름을 이끌어 온 작가들을 재조명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매체의 위상을 확장하고자 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의 장으로서 오늘의 부산 수채화를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의\_010-5587-7353 / 편집실

# JM양상블

## 환경콘서트 <이웃과 자연>

2026. 2. 10. 오후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2026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시리즈의 출발을 알린 공연은 JM양상블의 환경콘서트 <이웃과 자연>이었다. 지난달 10일 열린 이번 무대는 단순한 실내악 연주회를 넘어, 음악을 매개로 환경과 공존의 가치를 사유하게 하는 문화교육형 콘서트로 기획됐다. 'Joy of Music'의 약자인 JM양상블은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적 기쁨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며, 이번 공연 역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무대에는 권성은(오보에), 황미리(플루트), 유영옥(피아노)이 참여해 트리오 편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사랑의 인사」와 「기도」로 문을 열며 따뜻하고 서정적인 정서를 형성했다. 이어 권성은은 오보에 솔로로 「Hymm」과 「가브리엘 오보에」를 연주해 악기의 호흡과 음색이 지닌 투명한 울림으로 자연의 숨결을 환기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유영옥은 드뷔시의 「달빛」에서 몽환적인 음향을 구현했고, 쇼팽의 「대양」에서는 자연의 역동성을 형상화했다. 황미리는 무라마츠 타카츠키의 「지구」를 플루트로 연주하며 맑고 청명한 음색으로 무대를 이끌었다.

인터미션 이후에는 「동물아파트」가 관객참여 형식으로 진행됐다. 즉석에서 내레이션을 맡은 두 명의 관객과 연주자 간의 호흡은 예상외의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냈다. 이는 공연을 '보는' 자리에서 '함께 만드는' 자리로 전환시키며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 담론을 음악적 체험과 참여로 풀어냈다.

공연의 마지막은 전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을 위한 구호를 함께 외치며 마무리됐다. 공연장에서 다소 낮은 퍼포먼스였지만, 예술적 감흥이 일상의 태도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공연은 환경이라는 주제를 선율과 호흡, 참여의 경험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게 하여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고 공동체적 감각을 환기하는 예술의 힘을 다시금 확인한 무대였다.

글 정혜주



# 智垠 허종자 개인전 붓으로 써 내려간 좌망坐忘의 풍경

2026. 3. 9. ~ 15.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장자는 심재좌망(心齋坐忘)의 수양법을 통해 마음속의 온갖 번뇌를 씻어내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고요히 앉아 잡념을 버리고 자아를 비우는 수행인 「좌망(坐忘)」은, 허공을 가로지르는 솟대의 시선과 사물의 묵직한 존재감이 어우러져 공간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먹의 농담과 자유로운 붓질은 화려하지 않지만 중심이 있고, 공(空) 속에 우주가 스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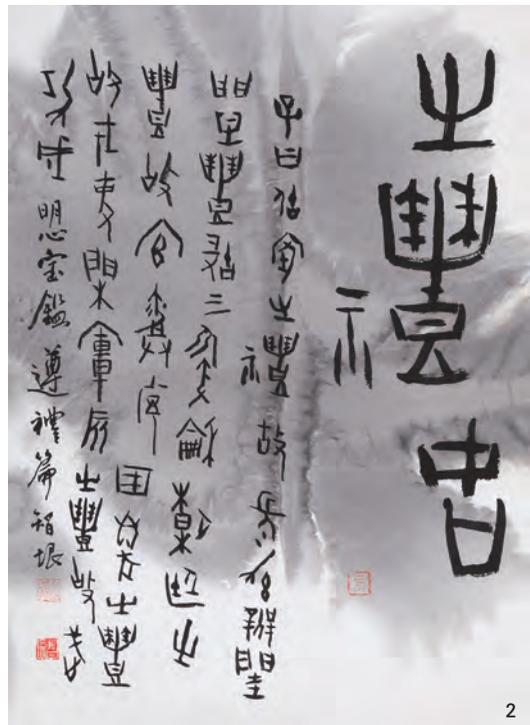
중국 송나라의 고승 대혜종교(大慧宗杲) 선사의 『서장(書狀)』에는 진국태부인(秦國太夫人)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에 등장하는 ‘한단(邯鄲)’은 ‘한단몽’ 설화를 가리킨다. 노생이라는 인물이 여옹이라는 도사를 만나 자신의 빈곤을 한탄하자, 여옹이 주머니에서 베개를 꺼내 이것을 베고 잠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노생은 베개를 베고 잠들어 꿈속에서 30여 년 간의 부귀영화를 경험하지만, 잠에서 깨어 보니 부엌에서 짓던 밥조차 아직 익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랜 세월 축적된 삶의 여정을 성찰로 승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출품작으로는 「운한수청(雲寒水清)」, 「인지상지(人之相知)」, 「명심보감구(明心寶鑑句)」, 「무진장(無盡藏)」, 「신심명(信心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3월 14일부터 이틀간 서예 집필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1회차), 오후 1시부터 2시까지(2회차)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회차당 정원은 10명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b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1



2

1 좌망坐忘, 30×45cm 2 명심보감구明心寶鑑句, 42×55cm

# 홍찬효의 시간여행展 향해로 떠나는 시간여행

2026. 3. 23. ~ 29.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을 대표하는 도예 작가 홍찬효의 개인전이 2026년 부산예술회관 기획전 '문화가있는날-예감'을 맞아 개최된다. 홍찬효는 오랜 시간 원형을 기반으로 표면 질감을 대비시키며 깊이감이 드러나는 조형 언어를 구축해 왔다. 그의 작업은 마치 오랜 세월 침식되거나 소멸해 가는 자연의 표면을 연상시키며 시간의 흐름이 응축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의 매개로 한 지속적인 탐구와 여정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향해를 떠나는 바다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유약과 표면 질감의 변화가 한층 강조되며 시간의 힘과 축적된 에너지를 더욱 강렬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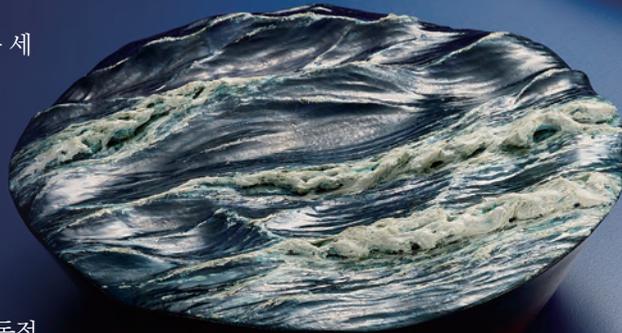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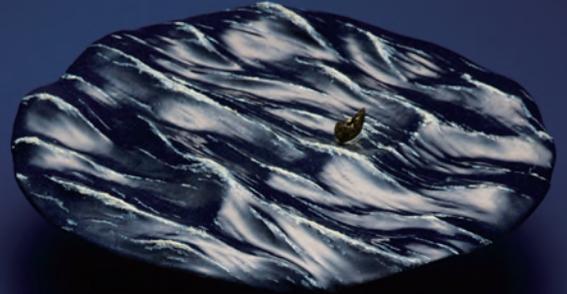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 홍찬효

- 개인전 15회
- 초대전 및 단체전 400여 회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덕진미술관(중국)
- 의흥박물관(중국) 남포문고 등 작품 소장
-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사)다빈예술평간협회 이사
-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도예가회, 효원도예가회 회원

##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3월 28일부터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1회차), 오후 2시부터 3시까지(2회차)로 나누어 운영되며, 점토를 활용한 흙 놀이와 동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10~15명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www.b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문화예술기획사례 I  
<영도구>

# 가족의 문화영역의 확장



똑똑똑예술매달

어쩌다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하고 있을까 되문다 보면 어릴 적 내 고향 통영이 생각난다. 한산대첩 축제가 열리면 초등학교생들이 이순신 군대로 분장해 가장행렬을 했더랬다. 동네를 걷다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계신 노구의 전혁림 작가를 만나 꾸벅 인사했던 기억도 있다. 집집마다 통영에서 난 자개가 옷장을 채웠고, 정월 대보름에는 달빛 아래 출렁이는 바다 위 구름다리를 친구들과 수다 떨며 건넜다. 감정의 표현, 미학적 감각, 전통 유산, 삶의 여유와 취향 등 내 문화 DNA는 이렇게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대부분 형성되었다.

부의 불평등은 쉬이 해소되기 힘들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가지는 삶의 태도, 취향, 행복감 같은 무형의 문화적 자산

은 도시 정책으로 상당 부분 채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예술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체가 많은 도시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존재 자체로 매력적이라는 것을, 서로가 연결되어 외롭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더불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선을 시도하는 예술 활동은 도시에 새로운 정체성과 활력을 일으킨다. 버려진 폐공장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고, 과거의 문화유산이 현재의 문화 산업 요소로 재탄생한다. 이렇게 도시매력도를 높이는 예술접근 방식은 나비효과를 불러와 원주민에게는 자긍심과 정주 만족감을, 외부인에게는 방문 욕구를, 창의적 인재들에게는 이주와 활동 욕구를 자극한다.

필자는 이것을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부른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가 단결하며, 창의성을 높여 사회 경제와 창조 산업 조성에 기여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원들은 예술 집적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시민 참여율, 사회적 결속력, 아동복지가 높고, 낮은 빈곤율을 나타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도시의 문화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다. 세상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 문화예술은 그저 도구나 장식처럼 치부될 때가 많다. 이번 정부의 문화정책을 보면 수출용 콘텐츠나 투자 대상으로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거대한 사회 재난에 예술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술은 덜 죽고 싶게 만듭니다”라고 답한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 사회다. 소득으로, 성적으로, 지역으로, 외모로 무수히 비교받고 또 비교한다. 그 병폐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필자는 지난 5년간 부산 영도구에서 문화도시센터장을 맡았다. 독특한 경관과 피난수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광역 기초 지자체 중 지역 소멸 위험도 1위이자 부산시 지자체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영도이다. 초기에는 음악도시, 미술도시 같은 장르성 문화도시를 지향했지만, 2,375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한 끝에 ‘도시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합니다’라는 미션과 함께 5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문화예술을 통한 고립감 완화’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복지-공간-평생교육 정책 등과 협력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방법을 찾아 고립감 완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화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2020년 1월에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문화, 문화로 혁신하는 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포용·혁신’을 주요 가치로 선정했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하며,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문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예술은 덜 죽고 싶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을 도시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2020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예술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보고서를 참조했다. 예술의 참여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돕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술의 중요성을 재고하고자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2014년 ‘사회적 처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프레임 워크로 ‘문화와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 간 협업, 모든 단계에서 예술단체와 예술가가 필수적으로 협력할 것이 언급되어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 환경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도시재생 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커뮤니티 문화자원 조사, 지역의 다양한 민간 공간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은 영도문화도시센터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립감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똑똑똑 예술가와 ‘똑똑똑 이웃파티’를 추진했다.

‘똑똑똑 예술가는 기관 및 이웃들의 추천으로 우울감이 높은 주민들의 집에 이웃 예술가가 찾아간다. 우울감 완화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은 많다. 그러나 관계망이 약한 사람





들에게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 진행되는 다수의 공공 프로그램은 진입난이도가 너무 높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나도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어렵다. 집에서 집 밖으로, 집 밖에서 이웃으로 연결하는 관계 확장이 있어야 했다. 이웃 예술가는 주민이나 참여자의 집에 방문해 이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어려운지를 묻지 않는다. 첫사랑, 사별한 배우자,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고 교감하면서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길 돕는다.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난 후에도 이어진다. 작가의 공방을 방문하거나 산책을 함께 하고 생일을 챙겨주기도 한다.

‘똑똑똑 이웃 파티’는 탈시설이나 자립 장애인의 독립을 응원하는 작은 축제다. 독립을 선언한 장애인들과 예술가들이 협업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파티를 연다. 장애인은 슈

퍼마켓이나 복덕방 등 마을 곳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낸다. 초대된 파티에서 사람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이웃으로 맞이하고 환영한다.

우리는 때때로 단 하루의 ‘추억’으로 평생을 살기도 한다. 환영하고 환영받는 경험을 통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영도 아이들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노란 안녕 전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예술교육으로 풀어난 ‘해적의 탄생’ 시리즈 프로젝트를 하며 나에서 타인으로, 타인에서 자연으로 시선을 확장한다.

예술에는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 연결의 힘을 ‘마을’에서 다정한 ‘연결자들’과 나눌 때 지역사회는 변화한다. 영도에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예술을 일종의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필수재이자 공공재로 여기는 순간을 목격했다. 2024년 영도문화도시센터 종료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 중 한 문구가 너무나도 마음에 남았다. “문화도시 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짝 사라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라는 80대 어르신 의 피켓 글귀였다. 죽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예술. 그 예술의 능력을 믿고 또 사랑한다.

글\_고윤정 고입팩트컴퍼니 대표·전 영도문화도시센터장





주변 학교와의 통폐합으로 2025년 3월 문을 담은 부산 부산진구 주원초등학교(노란색 건물). 부산일보DB

## 폐교에서 길을 묻다 : 폐교 활성화 <2>

폐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저출생과 인구절벽, 도심 내 유휴공간의 증가,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다. 앞으로도 폐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폐교에서 길을 묻다: 폐교 활성화'는 2월호(vol.248) '초고령 부산: 외로움의 시대, 폐교에 답이 있다'에 이은 두 번째 연재다. 이번 호에서는 폐교를 통해 어떠한 지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편집자 주)



옛 윤산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심 속 산림교육장으로 변모한 부산산림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이 은행 열매를 이용해 무당벌레를 만드는 모습. 부산일보DB

### 폐교 재활용: 세대가 섞이고 일상이 흐르는 구조 설계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교실 창문 너머로는 먼지 쌓인 책걸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이제 폐교는 사실상 다반사가 되고 있다. 한때 폐교를 활용한 재생 사업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많은 사업이 초반의 기대를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왜 좋은 취지의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을까. 이제는 실패의 원인을 냉정히 짚고, 폐교를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전환할 근본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초기 재생 사업은 대개 박물관·미술관·체험관 같은 시설로의 전환에 머물렀다. 공간을 새로 단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꾸준히 운영할 주제와 콘텐츠,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폐교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에 집중했을 뿐,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어떤 일상이 형성될지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다. 관람객이 줄면 곧바

로 예산 의존도가 높아졌고, 주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공간은 점차 활력을 잃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 채 시설만 남은 것이 반복된 한계였다.

물론 희망적인 사례도 있다. 2013년 폐교된 부산 윤산중학교는 산림교육센터로 재탄생해 지역 특성과 맞닿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예외에 가깝다. 많은 폐교가 '찾아오는 공간'이 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문만 열어 둔 상태에 머물렀다. 줄어드는 지역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지 관광객에 기대었고, 운영 인력과 재정 기반은 취약했다.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단발성 시설 사업으로 해결하려 한 접근이 근본적 한계였다.

따라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물론 생각도. 폐교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폐교를 통해 어떤 지역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학교는 본래 마을의 중심이었다. 배움과 놀이, 돌봄과 만남이 교차

하던 공공의 심장이었다. 이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리모델링도 일시적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해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치에서는 폐교를 노인 주거와 돌봄, 상업과 의료가 어우러진 생활 공동체로 재구성했다. 그 결과 수십 명의 주민이 실제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폐교는 버려진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무대가 되었다. 핀란드 헬싱키시는 폐교 건물을 아동·청소년 예술교육기관으로 운영한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폐교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복지·교육 전략과 연결된 체계로 보았다는 점이다. 건물의 외형보다 사람의 삶을 중심에 놓았기에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지역의 결을 존중하는 접근에서 출발해야 한다. 산복도로의 폐교와 농어촌의 폐교는 폐교 활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을 요구한다. 생태 전환 교육과 자연 놀이터, 청년과 예술가를 위한 주거·창작 공간, 지역 특산물 가공과 스타트업 거점 공간 등 폐교 활용 가능성은 너무나 다양하다. 운동장은 장터가 되고 교실은 일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대가 섞이고 일상이 흐르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은 제도다. 현행 법령은 용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다. 교육청과 지자체로 나뉜 관리 체계는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킨다. 여러 규정을 통합한 특별법을 통해 폐교 재산을 일원화하고, 윈스톱 인허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는 일정 기간 운영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운영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 갈등을 줄일 필요도 있다.

최근 정부가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연계해 리모델링 부담을 줄이고,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통해 매각과 대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그 방향성은 타당하다. 그러나 선언에 그친다면 또 하나의 공모사업이나 전시성 시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폐교는 더 이상 '남은 공간'이거나 '버려진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다. 교육·복지·산업·문화가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때, 폐교는 다시 사람을 모으는 중심이 된다. 문을 닫은 교실을 되살리는 일은 건물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흐름 삶의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폐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곧 지역의 미래를 가른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간의 재단장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되살리는 상상력과 실행력이다.

####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사례 - 일본 '나스 마을 만들기 광장'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에는 특별한 마을이 있다. 겉모습은 초등학교이지만 운동장에는 1~2층 주택이 들어서 있고 건물마다 실제 거주자의 명패가 걸려 있다. 2016년 폐교된 아사히초등학교가 노년 세대를 위한 공동체 '나스 마을 만들기 광장'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사업을 기획한 이는 70대 중반의 치카야마 케이코 씨다. 병원 근무 시절 어머니의 간병을 계기로 기존 요양시설의 비인간적 환경을 경험한 그는 "존엄을 지키며 나답게 늙을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나스마치의 폐교 활용 공모에서 그가 낸 '노인 중심 거점 마을' 구상안이 선정됐고, 민간 자금과 정부 보조금, 지역은행 대출을 더해 약 90억 원 규모로 리모델링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성과 충무성 표창을 받을 만큼 선진 모델로 평가됐다.

2022년 완공된 이곳은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다. 자립형 주택과 간병형 주거동, 임종을 준비하는 공간까지 갖춰진 장소에서 삶의 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 현재 80여 명이 거주하며, 마트·식당·빵집 등 생활 기반도 형성되어 있다.

이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폐교를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주거·돌봄·상업이 결합한 '생활 생태계'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다시 지역의 중심이 되었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글. 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

# 벚꽃

만개한 풍경 속을 걷는 한 사람의 뒷모습을 남겼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잠시 지나갈 뿐이다.

글 사진\_손승욱 부산사진작가협회 진행간사







## 그냥 그렇게

이유 없는 이끌림 앞에 나는 자주 멈칫한다. 하지만 삶의 가장 진실한 이정표는 언제나 '그냥'이라는 자리에 그려져 있다.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나선 날, 잘 다듬어진 황톳길을 만났다. 맨발을 파고드는 흙은 따스한 온기를 전했고, 가끔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누군가 왜 걷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얼른 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냥 걷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 '그냥' 앞에서는 어떤 해명도 무력해진다.

'그냥'처럼 오묘한 말이 또 있을까. 사전의 딱딱한 정의로는 이 단어가 품은 깊은 속내를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냥'은 이유를 따지지 않는 순수한 고백이다. 무엇



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짓이며, 인생의 난해한 물음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여유다. 때로 무력한 포기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은 삶의 풍량을 온몸으로 통과해 낸 이가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생의 빛깔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왜 이 일을 하고, 왜 이 사람이어야 하며, 왜 이 길을 택하는지. 쓸모와 결과라는 잣대로 스스로를 쉽게 몰아세웠다. 목적 없는 걸음은 시간 낭비라 여겼고, 대가<sup>代價</sup> 없는 만남은 무의미하다고 밀어냈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생활을 체계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놓치기 쉽다.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그냥’이라는 여백에서 피어난다. 보고 싶은 마음에 불쑥 찾아간 친구네 집, 그곳에서 나눈 투박한 진심이 하나의 예라면, 길을 잘못 든 끝에 선물처럼 마주친 낯선 해안의 붉은 노을은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장이다. 만약 목적지만을 향해 달렸다면 결코 마주치지 못했을 작은 들꽃의 떨림과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의 장난 같은 것들. 별 뜻 없이 건넌 “잘 지내?” 라는 안부가 누군가의 무너지는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한다. 굳이 인과관계를 따지려 애쓰지 않을 때, 숨어 있던 소중한 의미들이 스스로 제 얼굴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린 시절, 우리는 ‘그냥’의 달인이었다. 그냥 뛰고, 그냥 웃고, 그냥 놀았다. 친구가 되는데 복잡한 셈법 같은 건 필요치 않았다. 그저 함께 어울리면 그만이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듯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에게 던져진 상황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존재의 이유였고 생명의 근원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그때는 하늘만 보아도 가슴이 벅찼다. 시시각각 변하는 뭉게구름을 보며 상상력을 키웠고, 밤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별빛들을 보고 그 별과 나의 거리는 얼마만큼일까를 가늠하다 대청마루에서 스르르 잠이 들기도 했다. 어떤 때는 마을 앞 공터에서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쫓그리고 앉아 바라보기도 했다. 지나가던 어른들이 “뭐하니?” 라고 물으면 “그냥요” 하고 답했다. 그 ‘그냥’에는 순수한 일상의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저 나의 ‘있음’ 그 자체를 누렸던 나날들이었다.

좀 더 커서는 시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나는 논리와 목적이라는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렸다. 모든 걸음에 이유를 덧씌우고, 관계마저 효율의 저울에 올렸다. 삶은 단단해지는 듯 보였으나 그 견고함 뒤편에는 본래 지니고 있던 감성의 빛이 스러지고 있었다. 따스한 온기, 까닭 없는 웃음, 조건 없는 사랑의 촉감이 희미해졌다. 애써 쌓아 올린 의

미의 견고한 성체 속에서 가슴 한편엔 밤하늘처럼 텅 빈 공간이 자라났다. 그 공허는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가면이 벗겨진 채 드러난 존재의 민낯이었고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지는 가장 깊고 쓸쓸한 깨달음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가끔 카페 창가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각자의 목적에 묶인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가만히 눈에 담는다. 따뜻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질이면, 굳어 있던 마음의 결 사이로 고요한 평온이 스며든다. 삶의 거품이 빠진, 가장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순간이다.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 '그냥' 나오라는 친구가 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만나 몇 시간을 견고 이야기하다 헤어지는 길에 친구는 "오늘 참 좋았다"고 말한다. 무엇이 좋았는지 조목조목 따지지 않아도 나 역시 그냥 좋았다. 그 막연하고도 든든한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나누는 가장 투명한 시간의 증거였다.

세상에는 내 마음의 숲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그냥' 친구들이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유 없이 전화 한 통을 건네고, 조건 없이 팔을 벌려 안아주며, 함께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허기가 가신다. 잊속을 따지는 차가운 계산은 발걸음 사이에 끼어들지 못한다. 상대를 통과해야 할 문이 아니라, 마침내 도착한 집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만이 닿지 않는 진심으로 남는다.

물론 삶의 모든 페이지를 '그냥'이라는 밑줄로만 채울 수는 없다. 우리에게겐 분명한 마침표와 차가운 논리가 필요한 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사랑과 미움, 숨 막히는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면 논리는 이내 힘을 잃고 만다. 설명하려 할수록 멀어지는 그 눈부신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그저 '그냥'이라는 가장 소박하고도 깊은 고백을 건네게 된다.

오늘도 나는 그냥 글을 쓴다.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솜씨를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쓰고 싶어서 쓴다. 글 속에는 내 마음과 시간이 녹아 있다. 완벽한 논리나 화려한 수사가 없어도 괜찮다. 그저 쓰는 이 시간이 나를 살아 있게 한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그냥'이 필요하다. 이유도, 목적도, 조건도 지워버린 채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존재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그냥'은 해명이 아닌 이해의 언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겠다는 조용한 다짐이다. 미래 시계를 채우는 미세한 낙하, 영겁의 시간을 견뎌낸 바위의 침묵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



온 인연의 마주침.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냥'의 질서 안에 있다. '그냥'은 어쩌면 삶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우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고요하고도 다정한 속삭임이 아닐까.

비가 내린다. 사람들은 서둘러 우산을 펴고 바쁘게 길을 재촉하지만, 나는 처마 밑에서 서서 그 풍경을 느긋하게 바라본다. 꺾기를 울리는 경쾌한 빗소리는 마치 정교한 드럼 연주 같다. 빗방울이 수면에 그리는 동그란 파문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세상을 향해 부드럽게 번져 나간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이 소박한 머무름 속에서 나를 가로막던 삶의 딱딱한 경계들이 조금씩 허물어진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처럼, 가물었던 마음을 적시며 우리 곁에서 숨 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비가 그쳤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젖은 흙냄새가 발걸음마다 스며들고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간다. 아마 내일도 그렇게 왔다 갈 게다. 그리고 이어질 모든 날도 거대한 '그냥'의 숨결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이 깊은 안식 속에서, 우리는 '그냥'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강물 위를 고요히 흘러간다.

클\_심선경 수필가



## 제51회 부산음악상 수상

## 소프라노 변향숙

- 이탈리아 Conservatorio di Musica Luca Marenzio di Brescia 졸업 및 조교 과정 이수
- 이탈리아 Arena Beniamino Gigli 극장 데뷔
- 오페라 <Turandot>, <Madama Butterfly>, <Il Trittico>, <Cavalleria Rusticana>, <Die Fledermaus> 등 출연
- Centro Culturale Rosetum, Teatro Giuseppe Persiani 등 이탈리아 주요 극장 무대 활동
- 국제 성악 콩쿠르 Brindisi 1위, Arenzano 2위, Barletta 2위, Beniamino Gigli 3위

변향숙은 화려함보다 음악의 밀도를 쌓아 온 성악가다.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오페라 극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이후에는 독창회, 오페라 콘서트, 해설이 있는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 왔다. 무대의 규모보다는 관객과의 거리와 음악이 전달되는 순간에 더욱 집중하며, 무대 위와 무대 아래를 구분하지 않는 음악의 태도에 대해 오랜 시간 모색해 왔다.

변향숙의 음악 인생은 합창에서 시작됐다. KBS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음악과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성악가의 길을 선택해 이탈리아 브레시아 국립음악원 Conservatorio di Musica Luca Marenzio di Brescia 을 졸업했다. 유학 시절에는 다수의 오디션을 거쳐 베니아미노 질리 Beniamino Gigli 아레나 극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며 주역으로 무대에 섰다. 오페라는 단순한 공연 장르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임을 체감하며 각 극장의 역사와 분위기, 관객의 태도는 성악가로서 무대에 서는 열의와 함께 소프라노로서 무대의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무대는 나이나 경력보다 오직 실력으로 평가되는 경쟁의 장이었다. 모든 공연 출연이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결정되며,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매 순간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동양인 성악가로 살아남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무대에 오르기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자세를 몸소 체득하며 끊임없이 도전할 원동력을 얻었다. 귀국 후엔 관객과 가까이 호흡하는 무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학 시절 느꼈던 소프라노로서의 책임감이 '무대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면, 이후에는 '서양 중심의 오페라 문화를 어떻게 한국 관객이 쉽게 즐기고 공감하도록 만들 것인가'로 확장되었다.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특히 지역 관객과 깊이 교감하며 목소리로 감정을 전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많은 무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배역으로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의 리우Liu 역을 꼽았다. 리우가 지닌 순수함과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은 음악적으로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큰 성장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하지만 리우가 변향숙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성량과 음색 면에서 경험이 많은 성악가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에, 음악적 완성도뿐 아니라 인물의 이미지와 페르소나Persona까지 치밀하게 고민했다. 리우의 중국 여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앞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역할에 어울리는 외형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변향숙은 외적인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리우를 단순히 순종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몰락한 왕국의 아버지를 보필하며 끝까지 왕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해석했다. 희생-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분명한 의지를 지닌 인물로 감정을 담아 노래하고자 했다. 더불어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유학 시절 너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페라 공연을 꾸준히 관람하며 표정과 호흡, 음악적 표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단련의 과정은 리우라는 인물을 무대 위에서 온전히 살아 숨 쉬게 했다.



변향숙에게 음악은 삶의 중심에 가깝다. 공연 준비는 단순히 무대를 위한 실무를 넘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대학 출강과 성악 교육을 통해 후학들과 음악을 나

누면서 무대와 다른 방식으로 음악의 의미를 확장했다. 오랜 무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공연 전에는 여전히 긴장한다. 다만 이 긴장은 극복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음악과 무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긍정적으로 여긴다. 공연을 앞두고 작품과 인물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과정을 통해 긴장이 음악 속으로 스며들어 비로소 진실한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믿는다.

곡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기술과 감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안정된 발성과 테크닉은 감정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야 음악적 해석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잘 부르는 노래’보다 음악이 지닌 맥락과 감정을 관객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

몇 편의 공연 영상을 통해 변향숙의 음악 세계를 깊게 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이야기 속 인물과 상황까지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오페라가 한국 관객에게 낯선 문화임에도, 이해와 즐거움을 돕기 위한 그녀의 사명감이 느껴졌다. 이처럼 음악으로 문화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심과 노력은 그녀가 음악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보여준다.

변향숙은 오늘도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공감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 무대를 삶과 분리된 특별한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음악을 통해 관객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과정으로 여긴다. 이러한 철학은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과 갈라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 형식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그녀는 클래식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장르라는 장벽을 허물고자 작품의 이야기와 맥락을 살피며, 보다 가깝고 친근한 오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대 형식이 달라도,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의 가치는 변함없다고 믿는다.

클 이선



현대 속에서  
전통을 희구하다

## 무용가 황지인

- 황지인 전통무용예술원 대표
- 예술공동체 예인청 대표
- 부산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이수자
- 김진홍전통춤보존회
- 영남총학회 상임이사
- 범내골 성주풀이보존회 예술감독

“저거다. 저것은 내 것이다.” 고작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가 평생의 방향을 마음속에 새긴 순간이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길’을 알아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이다. 황지인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이미 춤과 함께할 삶을 직감했다. 운동장에서 열리던 학예발표. 요란한 화장에 갓을 쓰고 등장한 한량무가 시선을 붙들었다. 무대 위 선배가 부러웠다기보다 그 움직임이 이상할 만큼 ‘자기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었다. 그의 시작은 ‘무용가라는 직업을 꿈꾼 데 있지 않았다. 춤 그 자체를 품고 살고 싶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단순한 욕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단단했다. 무용을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어쩌면 선언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미래에서 춤이 없는 장면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 장삼채처럼 끈게, 전통으로 향한 춤의 시간

황지인이 선보이는 김진홍류 승무에서 장삼은 무대를 가로지르며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붙든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선을 떠받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장삼채다.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장삼의 흐름도 힘을 잃는다. 황지인의 춤 인생 또한 그러했다. 겉으로 드러난 무대의 성취 뒤에는 흔들리지 않

는 열정과 굳은 심지가 장삼채처럼 버티고 있었다.

출발은 군무였다. 부채춤으로 시작해 여러 작품을 익혔고, 중학교 시절 황무봉 선생에게 발레와 창작무용, 신무용을 배우며 기본기를 다졌다. 대학에서는 동아대학교 김은희 교수의 창작 작품에 참여하며 무대 경험을 넓혔다. 주역을 맡아 무대에 서는 시간도 이어졌다. 그러나 마음이 오래 머문 곳은 다른 곁이었다. “철이 들면서 춤의 호흡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고, 진짜 춤이 재밌다고 느낀 건 김진홍 선생님께 가서였다.” 17세에 김진홍 선생에게 입문하며 전통춤의 세계가 열렸다. 스승의 곁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며 호흡과 걸, 몸의 기운을 익혔다. 20대 중반을 지나며 방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스스로도 스물여섯 즈음부터는 전통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말한다. 창작의 무대에서 쌓은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면 전통은 그 위에 세운 중심축이었다. 그렇게 그의 춤은 여러 갈래의 시간을 지나 한 방향으로 깊어졌다.

### 이수자, 그리고 무용가

이수자, 그리고 무용가. 모두 황지인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에게 전통춤은 단순한 기술의 축적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도달하는 세계에 가깝다. 동작의 순서를 익히는 일은

비교적 빠를 수 있지만, 스승의 말이 몸 안에서 이해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스승 김진홍이 전해온 “전통춤은 예순부터 진짜가 나온다”는 말은 결국 전통이란 서두르다고 가까워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은 동작 이전에 사유하는 태도였다. 책 한 권을 건네며 특정 페이지와 문장을 짚어주던 방식, 어떤 사유든 춤으로 연결해 내던 자세 속에서 그는 전통을 잇는 법을 배웠다. 전통은 형식을 복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자각이었다. 부산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이수 과정은 그 깨달음을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인연처럼 시작했지만, 공부를 거듭하며 동래고무가 지닌 역사성과 의식무로서의 품격을 체감하게 되었다. 마당의 숨을 품은 <한량무>와 달리, 동래고무는 규율과 단정함을 요구하는 법춤에 가깝다. 익숙한 호흡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는 다시 초보가 되었다. 전통 앞에서의 겸손은 그렇게 몸으로 익혀졌다. 그에게 무대와 교육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무대에서의 집중과 치열함이 곧 교육의 설득력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도제식 전승을 기본으로 삼으며 온고지신의 자세를 지향한다.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통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인식이다. 그가 말하는 ‘잘 춘다’는 기준은 의외로 단호하다. 전통춤의 인기가 줄어든 현실을 탓하기보다 무대의 밀도를 먼저 돌아본다. 승무처럼 도구가 몸이 되기까지는 셀 수 없는 반복과 연마가 필요하다. 검무의 칼은 칼로, 승무에서 장삼은 장삼으로 살아야 한다. 그 치열함이 곧 관객에 대한 예의라는 태도는 그가 전통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 황지인의 춤

황지인의 춤에는 그의 생애가 깊이 스며 있다. 몸짓마다 스승의 가르침이 겹쳐 있고, 절제된 호흡에는 스스로를 가다듬어온 시간이 얹혀 있다. 그의 춤은 표현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이 응축된 형상이다. 최근 그가 자주 꺼내는 말은 ‘연결’이다. 범내골 성주풀이보존회와의 인연, 조갑용 선생과의 협업, 장구와 북, 소리에 대한 배움은 모두 전통을 더 전통답게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진다. 김진홍류 지전춤에 영남 소리를 입히려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스승이 품어왔던 바람을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씩 실천해가는 일. 개인의 성취보다 전승의 책임을 앞세우는 태도다. <황지인의 춤>은 2011년 국립부산국악원 무대에서 시작해 네 번째 공연까지 이어졌다. 다섯 번째 무대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지는 않는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제자들과 함께 스승의 춤을 더 단단히 다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통의 외연을 넓히는 것. 영상과 기록, 촬영과 접근성 같은 장치를 통해 전통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도록’ 만드는 일이다. 전통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재와 호흡하게 하려는 시도다. 그 확장의 거점으로 최근 한국전통무용원을 열었다. 광안리라는 장소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 외국인과 관광객이 의상을 걸쳐보고, 소품과 악기를 만져보고, 한 번이라도 전통을 몸으로 체험하는 공간.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경험을 통해 전통을 일상 가까이 옮겨놓겠다는 구상이다. 후배들에게는 거창한 훈계 대신 ‘찾아가라’는 말을 남긴다. 스스로도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사며 철학을 물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결국 전통을 이어가는 힘은 기술보다 관계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기록하고 묻고 연결하며 서로의 시간을 보태는 일. 그가 말하는 전통은 혼자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는 호흡이다. 그 호흡 속에서 황지인의 춤은 오늘의 삶 위에 전통을 희구하며 단절된 과거가 아닌, 현재와 융화되는 전통으로 나아간다.

글 인물사진 박준영



## 문학은 내 인생의 절친 작가 안유환

· 월간 《수필문학》(수필, 1997), 계간 《문예한국》(시, 2001),  
계간 《한국동서문학》(소설, 2012) 등단  
부산문인협회·부산소설인협회 회원  
(사)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고문  
전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여장통합 목사  
· 제8회 광나무문학상(시), 제23회 부산문학상(소설),  
제21회 한국해양문학상(소설), 제2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수상  
· 수필집 『매미소리를 들으며』(1999),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2014)  
· 시 집 『천사들의 휴양지』(2003), 『서설』(2006),  
『그림자의 귀향』(2012)  
· 소설집 『등근별』, 『그는 언제나 맨발이었다』(2017),  
『하이네 자서전』(2022)  
· 장편소설 『주네브행 열차』(2021)  
· 에세이집 『발탁해의 일출』 등

경북 영일군 대송면 동촌동의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안유환 작가는 자연의 숨결 속에서 유년을 보냈다. 농촌이 내어준 넉넉한 품에 대한 그리움은 늘 그를 다시 고향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형성된 정서와 감각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교회 활동은 그의 이성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며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 안유환은 '농촌을 일으키는 꿈'을 품었다. 그 밑바탕에는 심훈의 『상록수』와 같은 농촌 계몽문학과 류달영 박사, 배민수 목사, 덴마크 농촌을 일으킨 그룬트비 목사, 알베르트 슈바이처 등 그가 우상으로 삼았던 인물들의 삶이 자리한다.

그러나 대학 진학 이후, 부친의 만류로 농촌에 대한 꿈을 접고 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부산에 정착한 그는 부산일보 수습기자를 거쳐 편집부에서 3년, 이후 문화부 기자로 활동했다. 글 쓰는 취미 때문에 얻은 직업이었지만, 첫 취재 기사를 쓰고 돌려받은 원고를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첫 기사를 정성껏 써서 냈는데, 한참 뒤에  
휴사 갈래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면서 기사를 제대로 배웠지요.”*

기자 시절 그는 부산 구석구석을 기록했다. 1970년대 초, 기획 시리즈 '여름을 산다'를 취재하며 영도 동삼동에서 배를 타고 오륙도 등대에 들어갔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도시는 그에게 취재 대상이자 삶의 터전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문화적 자양분이 되었다.

삶을 살아가다 힘든 시기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듯 우리 몸과 의식에 각인된 성장기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다시 불러일으킨다.

안유환은 기자 생활 5년이 지났을 즈음 목회자가 되길 원했다. 그의 고민을 들은 김형석 교수는 신자이기엔 기자다운 기자가 될 수 있다며 신학의 길을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생각했고, 결국 1981년 2월 불혹이 가까운 나이에 신학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그는 '오래된 부르심'을 따라 예장통합 목사로 23년을 목회했다.

기자로 일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그의 독특한 이력을 언급하며, 목회 활동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물었다. 그 순간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잠시 침묵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무언가를 응축하듯 고개를 숙이며,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목회 활동을 '환희와 고뇌가 착종하는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목회는 목사가 할 바를 다하고 기도하며 참  
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  
는 일이니까요. 목회하면서 겸손과 오래 참음  
이 귀한 일이란 것을 익혔습니다.”*

안유환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십여 년간 일기를 써왔다. 그는 문학이란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 말하며, 공자의 '일일삼성(日三省)'을 접한 일이 일기 쓰기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글쓰기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간간이 수필을 썼고, 목회 활동 중에는 시와 소설을 집필했다. 1997년 《수필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2001년 계간 《문예한국》으로 시인에, 2012년 계간 《동서문학》으로 소설가에 데뷔했다. 세 장르를 넘나드는 이례적인 문화적 이력은 그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게 한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없었기에 시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적합한 단어를 찾아 나선 일이 곧 시 쓰기의 출발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그것을 '시가 돌아난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안유환은 시인이 되었다.

“시를 찾아갔지만 시는 내게 얼굴을 내밀지 않았기에 나는 한동안 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어렵 뜻이 깨달은 것은 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할 수 있게 해주고,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꼭꼭 숨겨주는 신뢰감을 보여주고, 내가 하기 어렵거나 차마 할 수 없는 말까지도 대신해주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고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말한다는 것은 존재를 존재 되게 하는 것이다. 시는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말을 찾아주고,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을 놓아주며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보조자였다.”

그는 어느 날 서면에 모임이 있어 나갔다가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생겨 서점에 들렀다고 한다. 좋은 소설집이 있는지 서가를 둘러보던 중, 뜻밖에도 한 권의 시집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류시화의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살았습니다』였다. 그는 표제 시를 몇 줄 읽어본 뒤, 더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시집을 집어 들었다고 했다. 그 한 문장 안에 차마 다 꺼내지 못할 수많은 말이 응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시란 한마디 말, 하나의 은유와 비유만으로도 사람의 가슴을 깊이 울리는 장르라고 말했다.

그는 “수필은 정돈된 마음의 행로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수필을 설명했다. 수필은 대개 기쁨이 충만할 때 혹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 쓰이기 쉽다. 그러나 즐거움을 여과 없이 풀어놓으면 퇴폐로 흐르기 마련이고, 자랑 또한 절제 없이 내보이면 품격을 잃기 쉽다.

수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를 단속한다. 감정을 곧바로 분출하는 대신 한 번 더 돌아보고, 경험을 그대로 나열하는 대신 의미를 가다듬는다. 그렇게 정돈된 기쁨은 절제가 되고, 절제는 곧 격조가 된다. 일상의 사소한 장면도 성찰을 거치면 고상한 울림으로 바뀐다. 정돈된 마음이 지나간 자리, 그 여운 속에서 독자는 문학이 주는 ‘울림의 힘’을 마주한다.

피천득은 수필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으나 우아하고,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산뜻한 문학이다.”

안유환은 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써보고자 사이버대학 문예창작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그에게 문학은 언제나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도 같았다. 그러던 중 그는 점차 소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소설을 쓰면서 비로소 “이제 문학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에게 소설은 하나의 거대한 마을과 같다. 그 안에는 시와 수필은 물론, 음악과 미술, 조각과 무용 등 온갖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소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 보이고, 억눌리고 숨겨진 삶을 비추며, 허구의 형식을 통해 오히려 인생의 진실에 다가가게 한다. 그가 소설에 깊이 천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소설적 진실’의 힘 때문이다.

2021년 첫 장편을 집필할 당시 그는 『안나 카레니나』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두 번 이상 읽었다고 한다. 글을 잘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많이 읽는 것

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러면서 프랑수아 모리 아크의 『테레즈 데케루』와 존 스타인벡의 『에텐의 동쪽』을 읽어보길 권했다.

그는 글을 쓸 때 퇴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결국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퇴고라고 말한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200번 이상 고쳐 썼고, 『무기여 잘 있거라』의 마지막 장을 서른아홉 번이나 수정한 끝에야 만족했다는 일화를 되새기며, 그는 뱃 벨의 『퇴고의 힘』을 추천했다. 또한 그는 폴 오스터의 방식을 따른다고 말했다. “그 문단이 적절한 모양, 적절한 균형, 적절한 음악을 얻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쳐 쓴다. 그래서 문단이 투명해지고, 쉽게 쓰인 것 같고, 더 이상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될 때까지 퇴고를 거듭한다”는 태도다.

내 인생의 절친-

문학과 정답을 나누며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

- 「서시」 부분

안유환에게 문학은 고뇌와 슬픔을 기꺼이 받아 주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와도 같다. 그는 문학 안에서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를 치열하게 사유한다.

시집 『그림자의 귀향』에는 이상과 구경<究竟>,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여정이 담겨 있다. 농촌운동의 도우미에서 일간신문 기자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거쳐 글을 쓰는 작가로 나아가기까지, 구불구불 이어진 삶의 궤적은 수필집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에 오롯이 담겼다. 누구도 그의 높이와 깊이, 폭을 쉽게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안유환 시집 『그림자의 귀향』과 장편소설 『주네브행 열차』

편과 몇 편의 중편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장편소설 『주네브행 열차』를 완성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단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답변 또한 한편의 문학 작품처럼 완결성을 갖추었다. 꾸밈없이 진실되게 드러내면서도, 정확한 비유와 인용을 통한 치열한 사유의 흔적이 존재했다. 응축된 감정은 얼룩진 편지 아래 묻어두고 그의 삶은 믿음 안에서 굽이치며 이어졌다. 안유환 이름 옆 아호<雅號>에는 ‘백여<白餘>’라는 말이 있다. 백<白>이란 글자에는 한 해의 어지러운 흔적을 하얗게 덮어줄 서설<瑞雪>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만년의 언덕 위에 눈 덮인 산야처럼 맑고 깨끗한 풍경과 주님 곁에서 티 없는 여백으로 존재하고픈 그의 소망이 있다. 조용히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여백 위로 어떤 여로가 이어질지 기대하게 된다.

글 인물사진 정혜주

명지дук곳

이 석 래

살구꽃 진 자리에  
벚꽃이 피고진다

흰꽃잎 함박눈 된  
뽕단 깔린 꽃그늘

꽃바람 꽃비를 맞듯  
언제나 세살배기

아빠와 다섯살 오누이  
잡은 손이 이쁘다

**작가노트** | 벚꽃이 휘날리는 명지дук길을 걷고 있는 일가족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몇 자 적어 본 것입니다.

글\_이석래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직전 이사장

# RE: VIEW

음악

말리의 삶과 음악  
왜 말리인가? \_ 김윤선

문학

강, 인간 이후의 시간  
박창주 『공무도하-임아, 강을 건너지 마오』 작품론 \_ 안수현

연극

『오셀로』 이후를 묻다  
- 〈시간의 저편에서〉의 상호텍스트성 \_ 김영희

## 말러의 삶과 음악

# 왜 말러인가?

---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Gustav Mahler

최근 국내의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말러 교향곡을 연주한 이래 2026년 역시 '말러의 해'가 아닌가 싶다. 지난 1월 10일과 11일, 서부산권 문화의 메카인 낙동아트센터 개관 연주로 말러의 교향곡 제8번, 일명 '천인교향곡'을 무대에 올린 데 이어, 다가오는 6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다시 한번 말러 교향곡 제8번을 듣는 행운을 맞게 되었다.

말러의 음악 세계는 교향곡과 가곡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에서 주인공 요아킴(호세 반 담)이 은퇴 무대에서 부른 연가곡 「뤼케르트 가곡 Rückert-Lieder」 중 네 번째 곡인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영화 곳곳에서 음악은 핵심적으로 흐르며, 세상의 관심과 명예를 떨쳐 버리고 예술의 본질에 더 충실해지려는 주인공의 심경을 은밀하게 그려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말러 음악의 깊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작곡가 자신도 “이 노래는 나의 이야기”라고 말했듯이 고립된 고독감을 품위 있게 표현한다.

### 지휘자로 시작된 음악생활

구스타프 말러 Gustav Mahler(1860년 7월 7일-1911년 5월 18일)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영토였던 칼리슈테 Kalischté라는 곳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4명의 형제 중 다수가 어릴 적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인지 말러는 특유의 예민함과 감수성을 지녔다. 6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열 살에 공식 무대에 데뷔하는 등 일찍이 음악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875년 열다섯 살의 말러는 빈 음악원에 입학하여 피아노와 화성학, 작곡을 배워 작품을 쓰긴 했지만 대부분 자기 손으로 찢어버렸다. 3년 뒤에 말러는 빈 대학에 입학하여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독일-오스트리아의 낭만파 최후의 상징으로 여기는 안톤 브루크너 Anton Bruckner(1824-1896)에게서 강의를 들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제지간 이상의 인간적 교류를 가졌다. 20세에 지휘 활동을 시작하여 수많은 오페라단을 거치며 폭넓은 레퍼토리를

섭렵하게 된다. 카셀궁정 악단의 부지휘자, 프라하극장 부지휘자, 라이프치히극장 부지휘자, 부다페스트왕립극장 음악감독을 거쳐 함부르크시립극장장 수석지휘자, 함부르크교향악단 지휘자, 빈 궁정오페라 극장 음악감독 및 지휘자, 빈 필하모닉 지휘자까지, 그는 '작곡하는 지휘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말러에게 지휘는 궁극적으로 작곡을 지속하기 위한 생계 수단에 불과했다.

20대 중반에 바쁜 일정 가운데 4년에 걸쳐 그의 첫 교향곡 제1번 「거인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을 완성하였다.

말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궁극적인 목표가 빈에서 지휘자로 자리 잡는 것이었고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중책을 맡는 데에 유대인이라는 장벽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휘자로서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유대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다. 결국 그는 1895년부터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빈 궁정오페라단의 지휘자가 되었다.

이곳에서 철저한 리허설과 극장의 개혁 등 전설적인 활약을 하지만, 타협을 모르는 고집불통의 성품이 단원들과 잦은 마찰로 불화를 낳았다. 게다가 정치적 상황에서 유대인을 비판하는 언론의 가세에 결국 10년 만에 사임하고 만다. 이 일로 인해 도피하듯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가 되지만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Arturo Toscanini(1867-1957)와의 경쟁에 밀려 메트로폴리탄 생활을 접고 지휘자로 활동하는 동안 집중할 수 없었던 작곡에 전념하게 된다.

### 작곡가 말러

말러는 휴가를 맞으면 아주 작은 오두막에서 머물며 작곡에만 전념하는데, 1892년 잘츠부르크 근교 슈타인바흐에서 많은 가곡과 교향곡 제2번, 제3번을 연달아 작곡했다. 이렇게 그는 여름휴가 때면 호숫가에서 수영하며 8살 아래의 여동생 유스티네 Justine Mahler와 종종 교류하며 작품을 쓰는 데 몰두했다.

1900년에서 1907년까지 말리는 창작의 황금기를 맞는다. 오스트리아 남부 마이어니히(Maiernigg)에 아주 작은 별장을 짓고 작곡하던 시기, 1901년 말리는 알마 신들러(Alma Margaretha Maria Schindler(1879-1964))와 연인이 되어 이듬해 결혼하고 교향곡 제4번부터 8번까지 탄생시킨다. 마이어니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알마와의 사랑이 짝트게 된 이곳을 ‘작곡가의 별장’이라고 그는 이름 붙였다. 이곳에서 ‘뤼케르트 가곡’ 중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를 작곡했으며, 이 곡은 속세와 단절하고 한적한 생활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즐기는 자신을 반영한 듯하다. 잊달아 거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동안 1907년 장녀인 마리아가 디프테리아로 사망하자 이곳 생활을 접게 된다.

이 무렵 이태백의 「비가행(悲歌行)」에 기초를 둔 가사에 「대지의 노래」가 작곡되었다. 하지만 딸의 사망에 이어 말리도 심장병 진단을 받아 걸음 수를 재면서 걸어야 했고 좋아하는 수영도 금지당했다.

이탈리아 토블라흐(Toblach)로 옮겨 자전적 내용의 교향곡 제9번과 미완성의 제10번을 작곡했다. 이 곡은 모두 장대한 서사시 같은 작품들이다.

### 말리의 사랑

빈 대학 시절에는 요제피네 포이젤, 24세엔 요한나 리히터, 26세에 마리온 베버와 연인 사이였다. 30대 초반에는 말리의 제자이자 당시 빈에서 최고의 소프라노로 활동하던 안나 바르-밀덴부르크(Anna Bahr-Mildenburg)와,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나탈리 바우어 레흐너(Natalie Bauer-Lechner(1858-1921))의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했다. 알마는 레흐너를 매우 질투하였지만, 말리는 알마에게 집중했고 레흐너는 말리의 천재성에만 주목하여 『말리에 대한 회상(Errinerungen an Mahler)(1923)』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말리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신뢰받는 가치를 지니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정신질환을 앓던 부모의 영향으로 말리는 조울증을 앓았다. 성장과정에서 심한 강박과 불안에 시달렸으며, 19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집착하는 그의 모습은 알마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이를 괴로워하던 말리는 1910년 프로이트를 만났고, 상담 결과 병증은 ‘마리아 콤플렉스’였다. 말리는 딸 같은 아내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찾았고, 13살에 아버지를 여윈 알마는 아버지 같은 남편을 원했지만 불행히도 두 사람의 바람은 서로 어긋났다. 알마는 이런 말리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뒤로한 채 내조했지만, 날개 잘린 새처럼 살면서 딸의 사망과 남편의 독선적 성격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알마는 그라츠(Graz) 근처 온천지 토벨바트(Tobelbad)에 요양하러 갔다가 4살 연하의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1883-1969))와 밀애에 빠진다. 당시 말리는 교향곡 제8번 「천인

교향곡」을 썼고, 알마를 붙잡기 위해 작곡 중이던 제10번 교향곡에 손을 대지만 1악장의 스케치만 남아 있었다. 1악장에서 20초간 지속되는 트럼펫의 A음은 알마를 의미하며 그녀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그의 고통을 암시한다. 4악장 마지막 큰북의 타격은 '그대만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쓰고 가슴을 치듯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괴로움을 담았다.

*'너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죽는다, 알름슈(알마의 애칭)  
für dich leben!für dich sterben! Almschi!'*

죽음으로써 더 이상 알마를 사랑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교향곡에서 사랑의 선언과 동시에 이별을 고한다.

### 말리의 레거시

'나는 삼중의 노숙인이다. 오스트리아인 속에서는 보헤미안으로, 독일인 사이에서는 오스트리아인으로, 세계에서는 유대인으로, 어디서든 이방인이었고 환영받지 못했다.' 말리의 말이다. 유년 시절 보낸 보헤미아 지방의 이흘라바Jihlava는 수많은 민요와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의 행진곡이 가득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선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선율은 어린 말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가곡과 교향곡의 소재로 재탄생되었다.

29세 때 모두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형제, 사랑하는 큰딸 마리아의 죽음까지 경험한 그로서는 한순간도 죽음이란 단어를 떠난 적이 없었다. 죽음 이후의 삶, 구원, 실존, 슬픔 등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을 넘나들며 이를 음악 속에 담고자 했다. 당시 음악가들의 징크스인 9번 교향곡의 저주에도 그는 초연하게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하였으나 결국 제10번 교향곡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1911년 사망해 장녀 마리아 안나 말리Maria Anna Mahler옆에 고이 묻혔다.



베토벤이 고전과 낭만을 동시에 품었던 것처럼 말리는 낭만과 현대를 함께 안았고, 브람스를 선망하여 고전적 형식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바그너의 음악을 추구하여 브람지안 이면서 바그너리안이었다. 말리에게 아내 알마는 음악의 원천이기도 했는데, 교향곡 제5번 4악장 「아다지에도Symphony No. 5 IV. Adagietto」는 두 사람을 결혼으로 맺어주었다. 작곡가로, 지휘자로 활약한 가장 화려한 시절을 서정적으로 풀어내어 영화감독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기도 하다.

말리는 세기말의 관점에서 영성과 종교적 상징성을 관통할 의도로 니체와 괴테의 철학 그리고 바그너의 작품세계를 반영하려 했다. 독일의 음악학자 콘스탄틴 플로로스Constantin Floros(1930-)는 이렇게 말했다.

'말리의 교향곡은 베토벤 스타일의 목적을 계승하지 않고 방향성 없는 전개, 갑작스런 단절, 이질적 소재의 자유롭고 때로는 기괴한 병치가 그 세계를 지배한다.'

심각한 병적상태 같은 장송행진곡과 유치한 듯 단순한 민요, 지나치게 밝은 환희와 대비되는 공허함은 억압된 감정에서 회복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삼중의 노숙인 말리의 정체성 혼란이 우리의 의식을 반영하듯, 우리는 독일의 논리정연함보다 분방한 보헤미안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강, 인간 이후의 시간

## 박창주

### 『공무도하-임아, 강을 건너지 마오』 작품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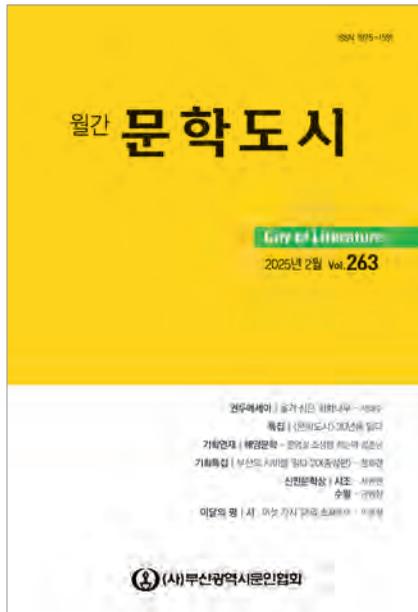
글\_안수현 문학평론가

박창주의 『공무도하-임아, 강을 건너지 마오』는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의 비극적 정조를 역사소설의 장대한 구조 속에 이식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성취는 전통의 재현이나 역사적 상상력의 복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 작품은 강이라는 자연의 형상을 매개로 인간의 결단과 감정,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상실을 하나의 흐름 속에 겹쳐 놓으며 인간 중심의 서사를 조용히 흔든다.

이야기는 임진왜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명과 조선의 외교적 긴장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북경의 궁정, 조양문 앞의 찬란한 장막, 병부상서 석성과 조선 사절단의 긴박한 협상은 거대한 역사의 장면을 이룬다. 그러나 독자의 시선을 오래 붙드는 것은 정치적 책략이 아니라 늦여름 밤 베를 멈추지 못하는 류 씨 부인의 한숨이다. 그 한숨은 역사적 결단과 무관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의 토양이 된다.

이 소설에서 역사는 인간이 통제하는 단일한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강물처럼 흐르며, 때로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다. 강은 사건을 가로지르는 능동적 존재로 기능한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려 하지만, 강은 그들을 가만히 통과시키지 않는다. 흐름은 언제나 인간의 의도와 어긋나기로 저항한다. 이 지점에서 소설은 인간의 결단을 과장하지 않는다. 강을 건너려는 의지는 강의 흐름 앞에서 상대화되며, 인간은 세계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한다.

강을 건너는 자와 남는 자의 간극은 단순한 공간적 거리 이상이다. 건너는 순간 사건은 완료되지만, 남겨진 자의 시간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 비대칭적 시간성은 인간 중심의 영웅 서사를 해체한다. 영웅은 결단하고 떠나지만, 세계는 그 결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남겨진 존재들의 기다림, 기억, 불안이 또 다른 역사를 구성한다.



류 씨 부인의 통찰은 권력의 언어를 새롭게 배열한다. 조선을 돕는 일이 곧 대명의 사직을 지키는 일이라는 판단은 손익의 논리를 넘어 서로의 운명이 교차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가는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존속 위에서 있다는 인식이 이 장면에서 조용히 떠오른다.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가 서로의 운명에 스며들어 있다는 감각은 이 작품이 지닌 현대적 깊이이다.

소설의 문장은 절제되어 있다. 화려한 장면 묘사 속에서도 감정은 과잉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백과 침묵이 의미를 확장한다. 베를 소리, 깃발의 나무껍질, 장막의 그림자 그리고 강물의 흐름은 인간의 목소리와 나란히 놓인다. 이때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또 하나의 행위자처럼 느껴진다. 강은 흐르고, 시간은 쌓이며, 인간의 선택은 그 흐름 속에서 작은 파문을 남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입을 향해 부르는 외침은 강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외침은 허공 속에 흩어지지 않는다. 남겨진 자의 몸과 기억 속에 오래 머문다. 이 잔향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타자를 향해 열려 있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공무도하-임아,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강을 건너는 자의 영웅담이 아니라 강과 함께 존재하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인간은 결단하지만, 강은 흐른다. 인간은 부르지만, 세계는 침묵한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드러난다.

박창주는 고대의 노래를 현대의 서사로 확장하며, 상실을 개인의 감정에 가두지 않는다. 그것을 역사와 자연, 시간의 흐름 속에 풀어놓는다. 그래서 이 소설을 덮고 나면, 우리는 단지 한 시대의 비극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묻게 된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강을 건너는 선택과 강가에 남는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남길 것인가.

이 작품의 가장 깊은 울림은 바로 그 질문에 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인간은 여전히 부른다. 그리고 그 부름은 인간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잔잔히 이어질 것이다.

# 『오셀로』 이후를 묻다

## - 〈시간의 저편에서〉의 상호텍스트성

창작집단 한, 연극 〈시간의 저편에서〉 (이동현 작/연출, 일터 소극장, 2026. 2. 13. ~ 14.)

글\_김영희 경성대 미래인재교양학부 교수, 연극평론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오셀로』는 복수나 권력을 둘러싼 갈등보다 질투라는 인간 내면 심리에서 비롯된 비극이란 점에서 더욱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 주제를 다룬다. 이 작품은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을 어떻게 광기로 몰아가는지를 오셀로라는 인물을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리극의 성격도 지닌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건은 오셀로가 데스테모나에게 느끼는 의심과 질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원작에서 오셀로와 데스테모나가 언제 사랑에 빠졌는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셀로의 삶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오셀로가 겪은 위협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무용담에 데스테모나가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짝퉁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가 자신의 고난을 동정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 역시 그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두 사람은 사랑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사랑은 그 이야기를 벗어난 현실 앞에서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사랑의 함정은 위기의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 오셀로는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어쩌면 군인이라는 기질 때문인지 데스테모나와의 사랑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해결 방식 또한 극단

적이고 이분법적이다. 사랑 아니면 증오, 용서 아니면 죽음이 라는 식이다. 그는 전쟁과 무공에 관한 일 외에는 세상에 대해 깊이 성찰하거나 말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데스테모나와의 사랑이 흔들리자, 아군 아니면 적이라는 군인식 사고로 그녀를 단죄하려 한다.

그는 데스테모나에게 준 사랑의 징표인 손수건이 부관 카시오의 손에 들려 있다는, 눈에 보이는 정황만을 근거로 두 사람의 불륜을 곧바로 의심한다. 물론 이아고의 교묘한 속임수가 큰 역할을 했다. 의심과 고통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진실을 확인하려고도 않고, 데스테모나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그녀를 몰아세운 끝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시간의 저편에서〉를 쓴 이동현은 공연 팸플릿에서 ‘작품이 태어난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 그는 과거 오셀로 역을 맡았던 경험을 회고하며, 데스테모나를 죽인 뒤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과 행위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한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오셀로의 결말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물음이 오셀로 II인 〈시간의 저편에서〉를 집필한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은 죽음 이후 저승에서 다시 만난 오셀로와 데스테모나가 자신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과정을 대화로써 되짚어 보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원작에 등장

하는 여러 인물을 과감히 배제하고 오해의 당사자인 두 사람만을 무대에 세운 2인극 형식을 택한 점도 특징적이다. 2인극은 두 인물의 관계에 집중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인 형식이다. 따라서 생전에 왜곡되었던 관계와 오해의 원인을 70분 동안 무대 위에 밀도 있게 펼쳐 보이기에 적절하다. 연극은 주변 상황이나 다른 인물을 끌어들이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한다.

극은 오해로 데스테모나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셀로가 저승에서 그녀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설정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오셀로는 자신이 저지른 비극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림자'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화해에 이른다.

원작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직면하게 한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이다. 데스테모나의 '말'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작은 단지 사건의 전제나 배경으로서 제한적으로만 기능할 뿐, 새로운 이야기 전개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지는 못한다. 그 결과, 원작이 지닌 비극적 긴장과 정서적 울림이 개작 속에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다소 약화된다.

사실 '오해로 인한 비극'이라는 서사는 오셀로뿐 아니라 수많은 작품에서 반복되어 온 보편적 모티프이다. 그렇기에 <시간의 저편에서>가 진정한 '오셀로 이후의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원작과의 긴밀한 연결성과 해석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인물을 차용하고 손수건을 둘러싼 오해를 재소환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에서 증폭된 비극적 감동을 관객이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원작의 비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주제 의식이 제시될 때 비로소 이 작품은 독자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극에서 특히 인상적인 요소는 무대장치이다. 저승을 배경으로 펼쳐질 사건을 담아내는 무대는 검은 바닥과 흰 커

튼으로 구성된 흑백의 공간으로,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하게 연출된다. 단순한 색채 대비는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극의 분위기를 응축한다.

무대 한쪽 벽에 설치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둠 속에 울려 퍼진다. 관객은 아직 아무 장면도 보지 못한 채, 먼저 낙수 소리를 듣게 된다. 이처럼 시각에 앞서 청각이 관객을 극 중 세계로 이끄는 장치는 매우 효과적이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저승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을 환기함과 동시에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무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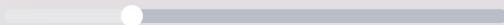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물은 정화와 치유를 상징한다. 동시에 물소리는 생명의 기운을 떠올리게 한다. 데스테모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지만, 오셀로와의 대화를 통해 억눌려 있던 감정을 쏟아내며 비로소 죽었지만 살아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한다. 이때 들려오는 물소리는 단순한 음향 효과를 넘어, 저승에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 회복과 정화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물속에서 금붕어가 숨 쉬며 살아가듯 죽음의 공간에서도 어떤 형태의 '살아 있음'이 지속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꼭지와 물소리는 생명과 소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서 <시간의 저편에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변화와 관계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연극은 본질적으로 소통을 지향하는 예술이다. 모든 문학과 예술이 그렇지만, 특히 연극은 현장에서 관객과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소통의 욕망을 지닌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교감은 연극을 살아 있는 예술로 만든다. 나아가 이러한 소통은 작품 간의 대화, 즉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확장된다. <시간의 저편에서>는 원작과 개작 사이의 논리적 유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17세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오셀로』를 오늘의 무대 위로 호출하여 원작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방운아 - 부산행진곡



— 제7화 —

## 「부산행진곡」과 메리켄 부두



야인초 작사, 박시춘 작곡, 방운아가 부른 「부산행진곡」 레코드

올해는 부산항이 개항한 지 150주년이 된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라 개항된 조선은 서세동점의 강한 파도를 외면할 수 없었다. 오늘날 용두산 앞 초량왜관 선착장에서 개항의 뱃고동 소리를 울린 부산항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항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어나갔다. 화물선이 들어오면서 신문물과 선교사 그리고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도 들어왔다. 이처럼 부산은 바다를 통한 이질적인 세력의 통로였고 변화와 충동을 몰고 오는 조선의 관문이었다.

개항 초기에 이곳으로 드나드는 화물선은 일본 거류민과 중계무역상을 위한 일본 나가사키와 중국 상하이 그리고 부산을 연결하는 단일 항로였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 부산항은 세계 150여 개국 500여 항만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2위의 거점 항만이 되었다. 이제 부산항은 조선의 관문에서 아시아의 관문을 지나 21세기를 선도하는 환태평양 중심 항만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부산은 상전벽해의 항만도시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러한 물류 도시가 되리라는 것을 예견이나 한 듯, 그러한 노래가 만들어져 불렸다는 점이다. 그것도 6.25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지치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인 1956년에 말이다.

동서양 넘나드는 무역선의 고향은  
아시아 현관이다 부산항구다  
정겨운 마도로스 남포동의 밤거리에는  
꽃 피는 젊은 아가씨들의 노래가 좋다

우뚝 선 영도다리 갈매기를 놀이터  
물에 뜬 네온 불도 부산항구다



메리켄 부둣가에서 내일 다시 만나주세요

파자마 입은 아가씨들의 인사가 좋다

봄바람 동래 온천 여름 한철 송도요

달마중 해운대도 부산항구다

가느니 못 가느니 종열차(終列車)의 베루(벨)가 온다

경상도 사투리 아가씨들의 이별이 좋다

이 노래는 야인초 작사, 박시춘 작곡, 방운아가 부른 「부산행진곡」이다. 부산항 주변의 역동성을 그린 이 노래는 전형적인 4분의 4박자 행진곡풍으로서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군림하던 박시춘의 걸작이었다. 특히 3절로 된 「부산행진곡」은 부산항이 글로벌 해상 관문이자 관광도시임을 자랑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황해도 박연 출생인 작사자 야인초는 본명이 김봉철이며 일제강점기엔 일본에서 음반 제작사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그는 부산 남향동에 정착하여 선박용 스크루를 제작하는 철공소를 운영했다. 여기서 하루 이틀 바다에 대한 시각을 넓혀가면서 일본에서 이미 경험한 음반 제작의 꿈을 펼쳐보려고 철공소 한쪽에 '코로나' 간판을 내걸고 겸업했다. 그러나 시설이 미비하고 영세한 처지여서 음반 제작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종수가 세운 미도파레코드사의 녹음기사로 활동하면서 작사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연유로 「부산행진곡」이 미도파레코드사에서 출시되었다.

이 노래를 부른 방운아는 본명이 방창만이며 경북 경산이 고향이다. 1951년 피란시절에 가수 백년설이 설립한 대구의 서라벌레코드사가 주최한 콩쿠르에서 1등을 하여 가수로 데뷔했다. 그가 부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당시 서라벌레코드사의 전속 작곡가로 있던 부산 대신동 출신이자 '동백아가씨'의 작곡가, 백영호를 만나게 되면서였다. 그의 첫 히트곡 「마음의 자유천지」도 부산에서 취입하였고, 결혼도

부산 여성과 했다. 부산에서 님도 보고 뽕도 딴 셈이다. 이 후로 「부산행진곡」을 비롯해서 「부산항구」, 「부산엘레지」, 「부산역 이별」 등 부산 관련 노래를 많이 불렀다.

6.25 전쟁 당시 부산에는 10여 곳의 레코드사가 경쟁했다. 그 가운데 부민동의 미도파레코드사와 아미동의 도미도레코드사가 쌍벽을 이루면서 초창기 우리나라 음반 제작을 이끌었다. 하지만 음반 제작 기술이나 시설이 낙후해 좋은 작품을 만들기 힘들었다. 특히 녹음 시설이라는 것이 겨우 사무실에 가마니나 미군 군용 담요를 둘러친 상태라 제대로 방음이 되지 않았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준 것은 부산항에 접안해 있던 LCILanding Craft Infantry 즉, 보병상륙정이었다. 이 상륙정은 해방 직후 미군으로부터 불하받은 것으로서 6.25전쟁 당시 부산항 제1부두 부근에 접안해 미군들의 식당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다 전쟁 후반기로 오면서 사교클럽으로 바뀌었고, 때로는 상륙정의 상갑판상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꽤 인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물 위의 '월광카바레'로 불리며 춤꾼들의 발길이 뜨거웠다. 이 LCI는 강판으로 건조되었기 때문에 방음 효과가 뛰어나 종종 부산 레코드회사들의 간이 녹음실로 이용되었다. 「부산행진곡」도 이곳 선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부산행진곡」의 가사 곳곳에는 바다 냄새가 배어 있다. 무역선, 현관, 갈매기, 마도로스, 메리켄 부두, 남포동, 영도다리, 송도, 해운대 등이다. 여기에 마도로스, 네온 불, 파자마, 메리켄 부두, 베루, 종열차 등과 같

## | 기획연재



은 왜색이 짙은 외래어도 더러 섞여 있다. 이 가운데 메리켄 부두와 베루, 종열차는 낯선 단어들이다. 그러면 부산항에서 메리켄 부두는 어떤 부두를 가리키는 것일까?

일본 고베항과 요코하마항에 가면 ‘메리켄 파크’, ‘메리켄 부두’ 등 ‘메리켄(メリケン:美利堅)’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한다. 메리켄(Merican)이란 말은 아메리칸(American)에서 비롯됐다. American의 me에 강세가 있어 메리켄으로 들렸던 것. 19세기 중엽부터 일본에서는 외래어를 지명에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항구가 고베항이었다. 1867년 고베항이 개항되면서 미국 영사관이 있는 부두를 ‘메리켄 하도바(メリケン ほとぼ)’라 불렀고, 그곳은 미국 무역선이 드나드는 주요 부두가 되었다. 이후로 미국 화물선이 싣고 온 정제 밀가루를 메리켄분(メリケン粉)이라 불렀다. 이처럼 일본의 메리켄 부두는 서양 문물의 통로이자 항만 성장의 중심축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된 부산항은 일본 독점 항로 개설 등 왜색화에 급급했다. 그래서 ‘메리켄’이 우리나라에 접목된 것은 미국 화물선이 본격적으로 부산항을 드나들던 6.25전쟁 이후가 된다. 구호물자인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실은 미국의 화물선이 부산항 제1·2부두에 접안되면서 드디어 일본처럼 ‘메리켄 부두’가 생겨났던 것이다.<sup>1)</sup> 되돌아보면 우리의 역사에 메리켄과 비슷한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53년 용당포에 미국의 고래잡이 어선 사우스아메리카호가 왔을 때, 조선인의 귀에 들린 아메리카라는 말은 역

시 3음절의 ‘미리계(弥里界)’였다.<sup>2)</sup> 그러니까 ‘메리켄 부두’는 우리식으로 하면 ‘미리계 부두’가 된다. 이들 ‘미리계 부두’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보고 1961년 가수 고봉산은 2부두를 지칭하며 ‘아메리칸 마도로스’라는 노래까지 불렀다. ‘메리켄’이 들어가는 이러한 노래 역사는 처음엔 ‘메리켄’이란 말로 시작되었다. 1939년 일제강점기에 이미 남인수는 ‘추억의 메리켄 부두’를, 채규업은 「메리켄 항구」를 불렀다. 심지어 1965년에 윤일로와 남일해는 동명의 「메리켄 부두」를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이중 남일해의 「메리켄 부두」는 영화 <열풍>의 주제가로 당시 마도로스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였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종열차(終列車)는 마지막 열차를 의미하는데, 아직도 일본 노래 중에는 ‘종열차’가 들어간 제목을 쉽게 만날 수 있다. 「終列車」, 「北國終列車」, 「漏の終列車」, 「愛の終列車」 등이다. 또한, 베루는 영어 ‘Bell’을 일본어 음독 벨(ベル)이다. 이처럼 작사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생활해온 관계로 곳곳에 일본의 숨결이 묻어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더구나 1절 가사의 마지막 구절인 “꽃 파는 젊은 아가씨들의 노래가 좋다”가 한때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노래가 전쟁 이후의 암울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보다 경쾌한 리듬 속에 부산의 꿈과 희망이 담긴 선견지명의 노래란 점에서 그 나름의 가

치를 인정하고 싶다.

사실 부산항은 1876년에 근대개항이 되어 6.25전쟁 전까지만 해도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두시설과 항만 부대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가 되어서도 이곳은 수탈과 식민의 항만이었지, 이 땅의 경제성장을 이끈 무역항은 아니었다. 해방과 함께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부두는 1:2:3:4부두가 전부였다. 이곳에 1만톤급이 8척, 8천~6천톤급이 13척 등 총 2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었지만 하역장비는 하나도 없었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이곳에 설치된 하역설비를 모조리 철거해 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부산항이 언제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을까?

1970년 3월 2일, 부산항 제4부두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컨테이너 운송시스템의 개척자인 미국 시랜트사 소속의 컨테이너 전용선 피츠버그호(1만 7천 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항하여 배에 실린 35피트 철제 컨테이너가 자체 데릭 Derrick에 의해 부두에 내려졌다. 이걸 곁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은 다수의 노무자가 투입되어야 할 하역이 기계에 의해 순식간에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마디로, 낙후된 부산항에 컨테이너 전용선이 몰고 온 일대 파란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지한 정부는 1970년 서둘러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부산항종합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74년 말 제5부두에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후인 197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컨테이너종합터미널이 준공되어 개장되었다. 이렇게 북항에서 시작된 컨테이너 부두는 서서히 오륙도 앞까지 축조되었고 여기서 더 이상 부두 확장이 어려워지자 새롭게 동지를 틈 곳이 가덕도 신항이었다. 드디어 2005년 신항에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되면서 명실공히 오대양 육대주를 드나드는 '무역선의 고향'이 되었다. 앞으로 북극항로의 전진기지 기능까지 주어진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항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항은 컨테이너 화물로 인해 일부 부두의 기능은 약해지고, 덩달아



우리나라 최초 컨테이너종합터미널인 제5부두(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



부산신항 전경(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 부두도 점차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이 대두되면서 2007년 마스트플랜이 확정되자, 기존 경쟁력을 잃은 2:3:4부두를 매립하여 친수 공간화하였다. 이어서 이 지역의 주요 명승지와 연계된 해양관광도시로 바꾸면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항만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항이 화물 중심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람과 공존하면서 IT 시대에 걸맞은 역동적인 부산의 미래를 그리는 것일 게다. 이쯤에 와서 또 다른 「부산행진곡」이 만들어져 역동적인 부산을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꼬.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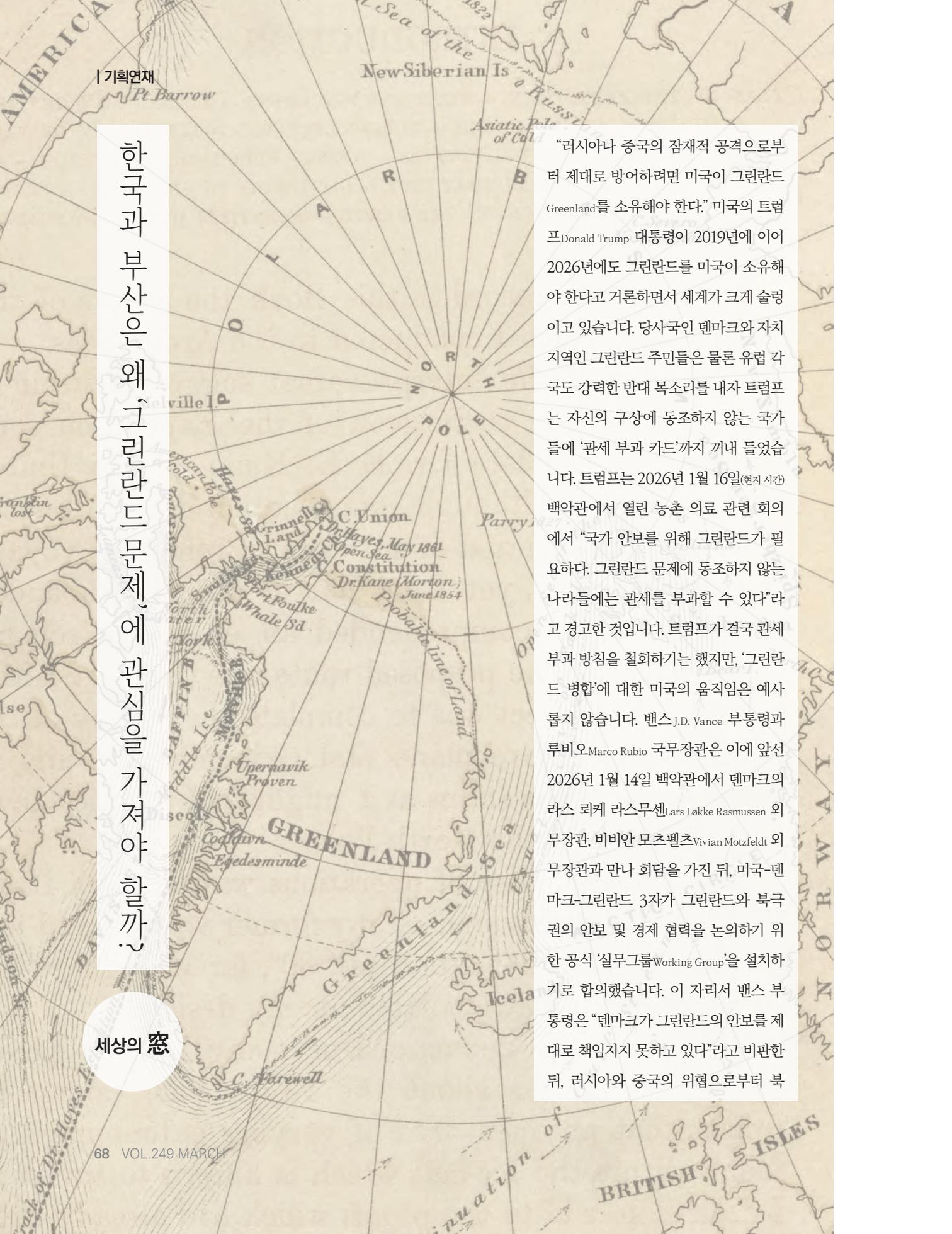
1 이용득, 『부산항 이야기』, pp.209-210. 유진퍼스콤, 2019

2 『일성록』, 1853년(철종 4년) 1월 6일(신해)

한국과 부산은 왜 그린란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세상의 窓

“러시아나 중국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제대로 방어하려면 미국이 그린란드 Greenland를 소유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이 2019년에 이어 2026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거론하면서 세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사국인 덴마크와 자치지역인 그린란드 주민들은 물론 유럽 각국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트럼프는 자신의 구상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2026년 1월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농촌 의료 관련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린란드 문제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결국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은 예상롭지 않습니다. 밴스 J.D. Vance 부통령과 루비오 Marco Rubio 국무장관은 이에 앞선 2026년 1월 14일 백악관에서 덴마크의 라스 뢰케 라스무센 Lars Løkke Rasmussen 외무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Vivian Motzfeldt 외무장관과 만나 회담을 가진 뒤, 미국-덴마크-그린란드 3자가 그린란드와 북극권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실무그룹 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서 밴스 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안보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북



극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극해와 북대서양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 면적이 남한의 21배(216만여 km<sup>2</sup>)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인구는 5만 6,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거대한 빙상(Ice Sheet)으로 덮여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10℃를 넘지 않으며,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와 함께 긴 밤(극야)이 지속됩니다. 빙하 아래엔 막대한 양의 희토류와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미사일 공격 발생 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역내 운항 선박 감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군사 면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운영되어 온 그린란드 북서부 끝자락의 피투피크 기지(Pituffik Space Base(미사일 감시 시설)에 100명 이상의 군 병력을 상시 주둔시켜 왔습니다. 또 덴마크와의 기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필요할 경우 원하는 만큼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는 시진핑 習近平 주석이 이끄는 중국(中華人民共和國)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대(一帶, One Belt)'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이고, '일로(一路, One Road)'는 동남아시아-인도양-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합니다. 1979년 1월 미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 값싼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막대한 부(富)를 축적한 중국은 미국에 맞서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일대일로입니다.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과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각각 제안했습니다. 일대일로의 틀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일대

일로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시진핑의 통치 이념인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중국몽, 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중국 공산당 당헌(黨憲)에까지 명기된 점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시진핑은 '세계의 상생과 발전'이라는 달콤한 말로 일대일로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이를 수용한 각국은 하나같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계를 손아귀에 쥐려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탐욕' 때문입니다. 일대일로가 추진된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중국 내부에 쌓인 과잉 생산 물량을 해외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어 자국 기업의 배를 불리려 했고, 참여국들의 표준(철도 궤도, 5G 통신망 등)을 중국식으로 통일해 경제적 종속을 유도했습니다. 또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을 우회하며 중동·아프리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건설된 항구들을 유사시 중국 해군의 군함이 정박하고 보급받는 해외 군사기지로 전환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난한 나라에 거액을 빌려준 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해당 국가의 영토나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권을 빼앗는 '부채의 함정'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패권'에 맞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약화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을 꾀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에 자본을 제공, 인프라를 지어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를 경제적·정치적으로 종속시키려 한 것입니다.

일대일로의 폐해는 곳곳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 돈으로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를 건설했지만 빚을 갚지 못해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조차(임대)해야 했죠. 또 중국 돈으로 마탈라 라자팍사

Mattala Rajapaksa 국제공항을 건설했지만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2022년에 국가 부도(디폴트)까지 선언해야 했고, 당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은 국민적인 항의 사태에 직면해 해외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중국 돈으로 과다르(Gwadar) 항을 짓다가 악성 부채로 연결되어 결국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어야 했고,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한 캄보디아(Cambodia)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의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는 몬테네그로(Montenegro), 아프리카의 케냐(Kenya)도 중국 부채에 움푹달작 못하는 처지에 빠져 신음 중입니다. 세계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중국은 전략을 바꿉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토목공사 대신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면서도 영향력을 훨씬 키울 수 있는 ‘디지털(Digital) 실크로드’와 ‘그린(Green) 실크로드’를 채택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 전략을 토대로 항구 대신 5G 통신망과 감시카메라(CCTV), 데이터 센터 등을 깔아주고 있는데, 이는 상대국의 정보 데이터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태양광과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을 내세워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지만 세계를 손안에 쥐려는 ‘중국몽 전략’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연결해서 그린란드 문제를 들여다보면, 중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소유의 꿈’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867년 제정 러시아(1613~1917년)로부터 알래스카(172만 3,337km<sup>2</sup>)라는 광활한 땅을 720만 달러에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에이커(4천 47m<sup>2</sup>, 약 1.224평) 당 약 2센트라는 헐값에 사들인 것이죠. 매입 당시에는 왜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냐는 국내 여론이 빗발쳤지만, 훗날 알래스카주(State of Alaska)는 미국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동산 투자’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인 줄만 알았던 이곳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니까요. 무엇보다 알래스카는 안보적 측면에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이 땅을 사들이지 않았다면 냉전기 시절 코앞에 구축해 놓았을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바라보면서 미국 국민은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을까요.

알래스카에는 현재 78만여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겨울의 혹한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이지 않아서 불량국가인 소련 또는 러시아 땅으로 남아 있었다면 현대 세계사는 완전히 ‘영동한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매입 경험을 토대로 그린란드를 소유하려는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Nuuk)에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532~3,550km이고, 덴마크 본토와 그린란드 본토 간의 거리는 2,920~2,932km 정도 됩니다. 반면 그린란드와 미국 알래스카주 사이의 직선거리(대권항로 기준)는 약 3,952~4,336km이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nchorage)와 그린란드 누크 사이의 거리는 약 4,189km 수준입니다. 대권항로란 구체(球體)인 지구 표면 위에서 두 지점 사이를 잇는 최단 경로를 말합니다. 앵커리지가 코펜하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 못지않게 미국과도 아주 긴밀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한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해 무려 1만 2,000~1만 5,000대 규모의 전투기 등 항공기를 유럽 전선(戰線)에 보냈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덴마크는 물론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크게 신세를 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렇다

면 왜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해서 항공기를 유럽에 보내야 했을까요? 당시만 해도 전투기는 항속거리가 짧아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등을 거치는 식의 '징검다리식 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육군항공대(USAAF)의 자료에 따르면 항로는 미국 동부→뉴펀들랜드(캐나다)→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이었는데, 그린란드가 중간 기지인 '불침항모 Unsinkable Aircraft Carrier'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미국 항공기를 유럽 땅에 보내기 위한 '주유소'이자 '이정표'인 셈이었죠. '볼레로 작전 Operation Bolero'의 하나로 진행된 항공기 수송 작전은 예측 불허의 자연환경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눈과 하늘의 경계가 갑자기 사라지는 '화이트아웃 Whiteout' 때문에 조종사들은 방향을 잃고 빙하와 충돌하는 사고가 잦았고, 맑다가도 순식간에 시야가 제로가 되는 극지 기상으로 인해 기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빙하 위에 불시착하는 사례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기지 덕분에 미국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만 대의 항공기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었고, 연합군은 그 덕분에 유럽의 공제권(空制權, Air Superiority)을 장악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북극에 가까워 긴 겨울의 혹한을 견뎌야 하는 자연환경 때문에 그린란드 거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21배나 되는 광활한 땅에 사는 주민 수가 6만 명도 안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린란드는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웃의 아이슬란드와는 달리 그린란드에는 활화산이 없어서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곳인 데다 희토류와 아연·구리·니켈·금·다이아몬드, 반도체 원료인 쿼츠(수정)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그린란드 주변 해역엔 약 175억 배럴의 석유와 대규모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

으로 추정되는 등 엄청난 자원의 보고寶庫이기도 합니다. 자원이 있다면 어김없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탐욕스러운 나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수년 전부터 그린란드에 공항 개발과 희토류 개발 등에 막대한 자본 투입을 시도했지만, 이를 간파한 미국과 덴마크의 강력한 제지로 일단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이 방심했다면 그린란드가 중국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덴마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말고 그린란드의 '영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를 단순한 '부동산 거래'로 보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확장' 차원에서 접근,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불량국가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인 거죠. 따라서 미국이 진정 그린란드를 인수하고 싶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에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외교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덴마크가 금전적인 욕심으로 그린란드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자유 공동체로의 통합'을 통해 유럽과 함께 세계 평화에 동참한다는 명분을 쥐야 합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에겐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되었을 때 누릴 '매력'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린란드가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느냐의 여부는 대한민국, 특히 부산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는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수에즈 운하 Suez Canal를 거치면 30~40일이나 걸리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 20일 내외로 단축, 부산항이 조선 및 물류산업 기지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부산시는 폭 넓은 안목으로 그린란드의 미국 인수 문제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혜로운 대처'로 임해야 합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저널리스트

## 부산문인협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시상식 개최

### 1. 23.(금)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 정기총회 및 시상식이 1월 23일 부산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2027년 [부산문학사 65년사] 발간을 준비하면서 『문학도시』 2026년 3월호부터 부산 문학단체를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을 밝혔다. 격려사에는 강인수, 변종환, 이석래 고문이 참여해 회원들을 고무했다.

시상식에서는 2025년도 『문학도시』 작품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 부문에는 고경숙·김명옥·오순이가 선정됐으며, 시조 부문 제만자, 소설 부문 박창주, 수필 부문 김영연·이순남, 동화 부문 최명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신인문학상은 △시 부문 김영애·이정식·이석수·정화영·오우정·유미숙·조현우·홍옥선·김점숙·박미영 △시조 부문 서현연 △수필 부문 이도현·안병진·이도경·정혜은·이금월·이명순·송순임·유권식·이명용·최길윤·유미숙·한우수·유종숙·심재남·박흥관·송연정·박미송 △소설 부문 박봉옥에게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2025년도 신입회원으로서는 시 분과 11명, 시조 분과 5명, 희곡 분과 1명이 회원 인사를 했다. 제2부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 건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건 ▲회비 인상 관련 건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정관 개정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 부산무용협회 제64차 정기총회 개최

### 1. 25.(일) 오전 10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무용협회는 1월 25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 6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무용인상 시상과 정관 개정, 신규 회원 인사 등이 진행됐다. 올해의 무용인상은 이용진이, 명예부산무용인상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박명민이 각각 수상했다. 이용진 무용인은 이날 불참해 Dance Project 에게로의 강건 대표가 대리 수상했다. 부산무용협회는 지난해 월드이엔지 강재섭 대표 등 춤 예술 애호가 두 명으로부터 총 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명예부산무용인상'을 신설했다. 명예부산무용인상은 부산 춤 예술계를 묵묵

히 지원하며 발전에 기여한 비회원 또는 타 분야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은 부산예고와 브니엘예고 무용과에 격려금으로 전달됐다.

## 부산미술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오늘의 작가상 시상식 개최

### 1. 22.(목)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가 1월 22일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및 공로상 시상과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오늘의 작가상'은 부산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우수 작가를 발굴·지원하고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부산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본상은 김용철(공예), 청

년작가상은 이원숙(판화)이 받았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500만 원,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4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공로상에는 조현용(한국화) 김명수(서양화) 정찬호(조각) 조수민(판화) 이용기(공예) 최정화(디자인) 조승혁(서예) 윤귀옥(문인화) 정용근(수채화) 김명분(민화·불화) 등 분과별 10명에게 수여됐다.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에는 △한국화 부문 민선화·신경화·우신자 △서양화 부문 권오경·김경숙·김연진·문정미·박영숙·이공미 △공예 부문 안병해·이근규 △서예 부문 강숙경·김도현·김미혜·김영희·김정우·김정희·김홍섭·남황기·박소영·박은숙·배정숙·이경옥·정복자·조은자·최서윤·최환철·허정 △문인화 부문 김병기·김영순·김정희·박철수·성기열·옥태석·조순옥·홍정희 △민화·불화 부문 김도화·박현술·이순진 △수채화 부문 김옥련 등이 인정서를 받았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업무보고, 사업결과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2026년 경상비 예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정관 변경(안) ▲연회비 인상(안) ▲부이사장 사임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 부산국악협회 제65차 정기총회 개최

### 2. 7.(토) 오전 11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국악협회 정기총회가 2월 7일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37명, 일반회원 4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업무 보고, 사업 실적 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이 차례로 진행됐으며, 이어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사업예산(안) 승인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특히 부산국악협회 2026년 사업계획에는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확대, 청년 국악인 육성

프로그램 강화, 시민 참여형 국악 체험 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부산 지역 국악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최광식 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으며, 부산국악협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제65차 정기총회 개최

### 1. 31.(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정기총회가 1월 3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27회 부산사진문화상 경과보고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부산 사진대전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인증서 수여, 감사패 및 공로상 수여가 차례로 이어졌다. 제27회 부산사진문화상 수상자로 문화상에 정귀순, 창작상에 윤영중, 신인상에 백종기가 각각 선정됐다. 공로상은 전춘선, 이석진, 김성숙, 김지민, 손승욱, 이상훈, 심한나 등 7명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해운대 블루라인(주) 강병호 본부장이 받았다. 부산사진대전 초대작가로는 정재욱, 여명수가 선정됐으며, 추천작가로는 윤영중, 장부봉, 성현미에게 각각 인증서가 전달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결과보고와 사업실적 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제64기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2026년 행사 및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규정 개정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 (사)부산음악협회 권성은 회장 제18대 회장 선출 및 제51회 부산음악상 수상자 발표

### 2. 12.(목) 오전 10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음악협회 권성은 회장이 지난 2월 12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권 회장의 단독 출마로 진행됐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음악협회는 '제51회 부산음악상' 수상자도 함께 발표했다. 공로 부문 수상자로는 비올리스트 박소영, 연주 부문 수상자로는 성악가 변향숙과 피아니스트 윤재웅을 각각 선정했다. 박소영은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유치 기념 홍보 연주(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 2025년 베를린 무직페스트 초청 폐막연주, 원현 BR무지키비바 개막공연 등에 참여했다.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크로노스앙상블, 부산네오피합모니, 부산청년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다. 변향숙은 2005년 데뷔 이후 20여 년간 오케스트라 협연을 비롯해 성악 융합공연, 성악가들이 부르는 대중가요 & 뮤지컬 콘서트, 아르피지오 오케스트라 11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 올라 성악의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윤재웅은 서울문교부장관 콩쿠르 2위, 2003년 21세기 오케스트라 주최 전국학생음악콩쿠르 3위 등을 수상했으며, 진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와 금년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협연 등으로 지역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산음악상은 음악의 가치를 높이고 부산 음악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을 격려하기 위해 1975년 제정돼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박소영 (비올리스트)



변향숙 (성악가)



윤재웅 (피아니스트)



## 뉴비기닝展 (2025 굿바이메모리전)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 초대전 개최

2026. 3. 17. ~ 20.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사진작가협회가 부산 사진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어 협회 정회원 및 준회원 가운데 40여 명을 선발했다. 참여 작가들은 1인당 2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다양한 시각과 실험적 시도가 담긴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 부산 사진의 흐름을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은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월간 『예술부산』

## 광고지면안내

####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원)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시, 또는 예초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시네바움  
3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시네바움에서는 다채로운 인문·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 서울미술관 관장이자 미술사학자인 김석모와 함께 전성기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그리고 일탈의 미학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의 미술사가 진행된다. 또한 기사 작성의 기본과 취재 기초, 인터뷰 기술을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시민기자대학) 강좌는 박흥식(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더코리아저널 편집인)이 맡는다. 아울러 다큐멘터리 <나무의 노래> GV 시사회에서는 진재운 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 ‘하이쿠 산책’ 등 배움과 사유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10-2774-3455



**장상만 목조각 개인전  
피어오르다展**

**2. 25.(수) ~ 3. 1.(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평생 석조각의 작업에 매진해 오던 장상만 작가의 첫 목조각 전시회다. 작가는 11년 전부터 목조각 작업에 몰두하며, 추상과 구상, 그 어떤 표현의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이 투영된 형상’을 제작한다. 이번 전시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황송, 소사나무, 오동나무 등 20여 점의 크고 작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완성의 길목에서 ‘조각적인 삶’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창조질서 속에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면서 자연의 여러 재료에 내재해 있는 형상과 느낌을 찾고 이를 표현하는 작업’의 길에 동행해 보길 추천한다.

문의 051)519-5660



**트리오 피아체  
정기연주회**

**3. 8.(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트리오 피아체 정기연주회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두 작곡가가 남긴 피아노 트리오의 정수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공연이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며 하나의 호흡으로 엮어가는 이 무대는 관객에게 음악을 듣는 경험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감각을 회복하게 한다. 트리오 피아체는 클래식 of 깊이를 보여주면서도 음악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낭만주의 음악을 통해, 일상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집중과 공감의 시간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051)442-1941



### 금난새와 함께하는 톡!톡!톡!(Talk) 실내악 페스티벌

3. 11.(수) ~ 13.(금) 오후 7시 30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3일 동안 이어지는 <톡!톡!톡!(Talk) 실내악 페스티벌>은 기타와 피아노, 트리오와 브라스까지 서로 다른 편성이 만들어내는 실내악의 다채로운 악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다. 고전에서 영화음악, 탱고와 재즈에 이르기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은 실내악을 '어렵지 않은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한다. 특히 예술감독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하는 무대는 음악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의 맥락과 감정에 공감하며 이해하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음악과 대화하고 감각을 확장하는 클래식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51)749-7651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세계 클래식 음악산책 I

3. 13.(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세계 클래식 음악산책 I>은 홍석원 지휘자의 해설과 수준 높은 연주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이다. 세계 각국의 음악을 테마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관객이 부담 없이 클래식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국내 최초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라벨 전곡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고, 2024년부터 말러 사이클을 선보이며 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해 왔다. 이번 음악산책 시리즈를 통해 일상 속에서 클래식의 깊이와 감동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문의 051)607-6000



###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부산

3. 14.(토)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부산>은 영화 속 명장면을 수놓았던 음악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다시 영화처럼 마주하게 하는 공연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작품인 <사운드 오브 뮤직>, <레미제라블>, <갯츠>, <윈스>의 넘버가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음악이 흐르는 순간, 관객의 기억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크린 밖으로 이어진다. 화이트데이를 맞아 준비된 이번 공연은 특별한 하루를 더욱 로맨틱하게 영화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문의 051)607-6056



**연극**  
**〈할딱배기와 히말라야〉**

3. 19.(목) ~ 21.(토)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문화판 모이러]의 상임연출가이자 작가인 김숙경이 선보이는 신작 희곡으로, 인간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죄의식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감정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 작품은 일상에서 품고 살아가는 후회와 상처에 주목하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할딱배기와 히말라야〉는 거창한 해답 대신 쉽게 말하기 어려운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는 데 집중한다. 용서받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애 대해 질문을 던진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과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두 인물을 통해 비추며 삶을 견디게 하는 감정의 온기를 조용히 전한다.

문의 010-9701-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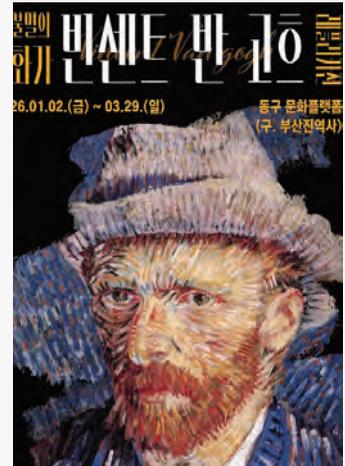


**박영환 개인전**  
**Immaterial: What Remains**

2. 28.(토) ~ 3. 28.(토)  
맥화랑

박영환은 먹과 한지를 매개로 감정과 기억, 시간의 층위를 섬세하게 탐구한다. 'Immaterial: What Remains' 전시에서 회화와 도판 작업 17점을 선보이며, 사라진 형상 너머에 남아 있는 감각과 상태에 주목한다. 작가의 검은 구체는 현재의 경험과 감정을 응축한 조형 단위로, 산수와 건축 공간 속에서 기억과 감정의 휘발성을 나타낸다. 불이라는 사건을 통한 도판 작업은 감정과 기억의 잔존 방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며, 형태 이후에 남는 것에 대한 사유를 담았다. 이 전시를 통해 조형 언어와 시간을 재탐색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51)722-2201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 전**

1. 2.(금) ~ 3. 29.(일)  
동구 문화플랫폼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 전’은 고흐의 작품을 원작과 동일한 질감·색감·크기로 재현한 레플리카를 통해 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난다. 초창기 농민화가 시절부터 오베르에서의 마지막 나날까지 고흐의 창작 여정을 다섯 개의 테마로 구성했다. 작품 사이를 거닐며 빛과 공간을 체험하는 몰입형 전시 방식으로 관람의 깊이를 더한다. 실제 붓질과 색채의 질감을 충실히 구현한 레플리카는 고흐 특유의 강렬한 표현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고흐가 전하는 예술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51)465-4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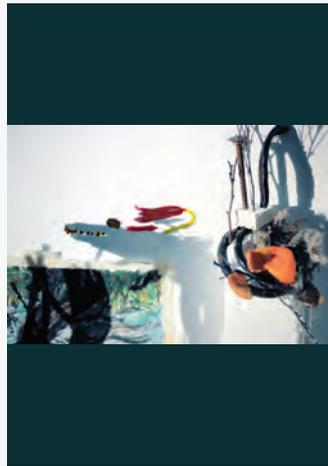


## 메이븐 개인전 맘마미아

3. 3.(화) ~ 30.(월)  
케이브아트 갤러리

메이븐 개인전 '맘마미아'는 반복되는 일상과 계획된 삶 이면에 숨겨진 현대인의 감정에 주목한다. 예기치 않게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과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들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정리되지 않은 혼란과 방향 속에서도 피어나는 미약한 희망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맘마미아'라는 감탄이자 탄식 같은 단어에서 비롯된 흐트러진 감정들은 춤추듯 움직이는 장면으로 이어지며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관람객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제안하는 전시다.

문의 0507-1340-6247



## 에밀리 피터 초대전 외면된 것들의 계절

3. 10.(화) ~ 4. 10.(금)  
갤러리 인터페이스

에밀리 피터는 버려진 오브제와 이름 없는 흔적,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을 활용해 자연의 일부로 다시 편입시킨다. 초원과 숲의 성장 방식에서 발견한 반복과 변주의 패턴은 형태와 색채의 언어로 확장된다. 설치와 회화, 사진과 다양한 재료를 넘나드는 작업은 우연성과 감각의 총위를 더하며 아직 불리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여성 예술가의 계보를 잇는 작가의 긴 예술적 여정은 자연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 전시는 사라지는 것들과 남겨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존재의 흔적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자리다.

문의 051)808-7105



## 팬텀스타워즈

4. 19. 오후 5시  
부산콘서트홀

부산예술후원회가 주최하는 <팬텀스타워즈>가 봄을 깨우는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 출신의 청년 성악가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지역의 예술문화 향유를 확장하고,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이스 길병민, 바리톤 이승민, 테너 김진훈을 비롯해 오르가니스트 장대호, 하프스트 한혜주가 참여한다. 연주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맡고, 지휘는 우나이 우레초 주비아가 담당한다. 또한 연합합창단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선보이며 웅장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문의 010-3940-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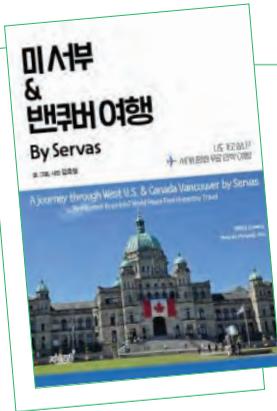
### 선(線)에 대하여 안웅 / 도서출판 경남

안웅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선(線)에 대하여』는 다섯 개의 부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희로애락과 삶의 여러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특히 표제작 「선(線)에 대하여」는 고무줄놀이를 활용해 인생의 제약과 도전,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깊은 울림을 준다. 그의 시들은 사랑과 그리움, 아픔과 즐거움, 행복과 회상 등 다양한 감정을 진솔하게 그려냄으로써 자신만의 '선'을 돌아보게 한다. 안웅 시인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다.



### 강강 권민경 / 지식과감성

『강강』은 늦은 나이에 글쓰기에 뛰어난 권민경 수필가가 삶과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을 담담한 시선으로 깊이 있게 포착한 첫 수필집이다. 표제작 「강강」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이 끓으면 엄마의 향도, 고향의 뱃고동 소리도 집안 가득 들어차겠다. 네 박자로 울리던 신나는 강강 소리와 함께”라는 구절처럼, 고향에 대한 진솔한 추억이 따뜻하게 펼쳐져 독자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이 작품은 글을 쓰는 기쁨과 깊은 성찰이 어우러져 있으며, 나이나 때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독자에게 전한다. 수필과 시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학을 통해 권민경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만나볼 수 있다.



### 미서부 & 밴쿠버 여행 By Servas 김효정 / 지식과감성

『미서부 & 밴쿠버 여행 By Servas』는 미국 서부 지역과 캐나다 밴쿠버를 깊이 있게 탐방한 여행에세이다. 유명한 여행지보다 숨겨진 명소인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하며, 남다른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되어준다. 작가의 여행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라히 배치한 영어 표현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미국 말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열망에서 출발한 이 여행기는 호텔 대신 세계평화무료민박 단체인 SERVAS 회원인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 여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생한 사진과 세밀한 스케줄러, 한영번역까지 도맡은 김효정 수필가는 특히 시애틀과 밴쿠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며, 서바스 여행을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이다.

# 예술 아카데미

## 수강생 모집 중

###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선정가능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 수강기간

2026년 1월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문의전화

070-4206-9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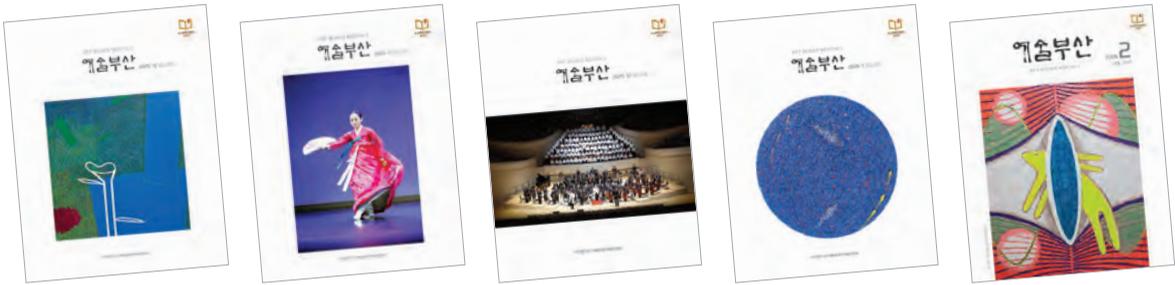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및시간	장소	수강료
1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2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3	즐거운 가야금교실	20명	수) 10:30-12: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5:00-16: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가곡교실	20명	수) 13:00-14:3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10	부채춤교실	20명	화) 15:00-16:30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11	사진아카데미(초급반)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4개월 12만원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 문화의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Play on Busan  
문화공연



범시민 도서교환전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